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위즈워스의 공화주의적 시론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문학전공

맹 민 호

위즈워스의 공화주의적 시론

지도교수 한 서 린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문학전공

맹 민 호

맹민호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위 원 장 유 명숙 (인)

부 위 원 장 민 은경 (인)

위 원 한 서린 (인)

국 문 초 록

워즈워스의 시론은 그가 당대에 대두된 공화주의라는 사회 체제에서 개인과 개인의 내면에 집중했다는 면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성을 지닌다. 첫 번째 장에서 이 논문은 워즈워스가 프랑스 혁명의 과격화에 반발해 개인의 내면에 집중하는 새로운 언어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했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개인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개인들이 자코뱅들의 사회적 이상인 공화주의의 원칙에 따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코뱅들은 언어가 개인의 의지와 내면을 투명하게 재현할 수 있다는 루소의 언어관에 집착하였으며, 워즈워스는 자코뱅들이 사실은 개인의 내면을 존중하지 않고 단순화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이어지는 장에서, 이 논문은 『서곡』에서 워즈워스가 개인과 자연의 상호 작용을 묘사함으로써 정교하게 개인의 내면을 재현하였음을 주장한다. 자연은 개인의 느낌과 사고를 혼동시켜 결국엔 양자가 통합되는 모습을 만들어 낸다. 이 통합은 순간적으로 공화주의의 딜레마, 즉 개인의 자유가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그 자유가 제한되어야 하는 모순을 해소한다. 이 딜레마의 해소를 통해 워즈워스가 묘사한 자기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현실을 인지하며 자신의 생각과 진정성을 가진 개인은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상적인 시민의 모습과 연결될 수 있다. 마지막 장에서 이 논문은 워즈워스가 주변화된 인간에게서 비인간성을 경험하는 「무너진 오두막」의 화자를 묘사함으로써 느낌과 사고의 통합을 한층 더 강하게 구현하고 있음에 집중한다. 비인간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화자는 마가렛과 공감하고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그의 인식의 한계를 넓히고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환기한다. 이 공동체는 루소 역시 일반 의지의 이상적 구현을 위해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요성을 지닌다. 하지만 워즈워스의 공동체는 감정의 교류와 공감이라는 더 본질적인 소통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루소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워즈워스는 그의 시론을 통해 스스로 사고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상적인 시민상을 암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들과 감정적이고 존재적인 정체성을 공유하는 보편적 인간상을 상상한다는 점에서 더 기본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통합을 탐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워즈워스, 시론, 『서곡』, 「무너진 오두막」, 공화주의, 자연, 공동체, 하층민

학번: 2012-20020

목 차

서론.....	1
1. 혁명과 대안적 언어로서의 시: 『서곡』 9-12권을 중심으로.....	7
2. 공화주의의 딜레마: 『서곡』 6권을 중심으로.....	25
3. 시 속 하층민과 공동체의 가능성: 「무너진 오두막」을 중심으로.....	46
결론.....	62
인용문헌.....	64
Abstract.....	67

서론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가 품었을 법한 정치적 견해에 대한 논의는 그의 시가 당대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시사하는 바를 유추하는 데 지나칠 수 없는 논의이다. 특히 『서곡』(*The Prelude*)에서 워즈워스가 혁명의 과격화라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와 자연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데서 알 수 있듯, 워즈워스의 시론에는 당대에 발생했던 정치적 사건이 그의 시론에 미친 영향들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이 논의와 관련해 기존의 비평가들이 견지하는 주장을 살펴보는 작업은 당대의 정치적 담론과 관련해 워즈워스의 시와 그 시가 묘사하는 자연이 가지는 의미를 읽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맥간(Jerome McGann)은 낭만주의 시들이 “각기 다른 예술적 수단을 개발함으로써 그들과 역사적인 맥락과의 연계를 메우고 은폐하려 한다”(tend to develop different sorts of artistic means with which to occlude and disguise their own involvement in a certain nexus of historical relations; 82)고 주장한다. 그는 워즈워스의 「무너진 오두막」(“The Ruined Cottage”)을 당시의 사회적, 역사적 현실을 자신의 시에서 지워 버리려 한 예로 든다. 맥간에 의하면, 워즈워스는 독자들의 의식을 “감각적인 표면”(sensational surface; 83)으로 돌린다. 이어서 맥간은 워즈워스가 생사를 알 수 없는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비참한 죽음을 맞는 마가렛(Margaret)의 현실을 미화해 독자들로 하여금 그녀의 이야기를 감각적, 예술적 아름다움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계급 구조로 인한 부조리를 은폐하며 지배를 정당화하는 지배 계층의 이데올로기를 구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84).

하지만 맥간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이상이 반드시 당시의 정치적 사안이나 부조리에 대해 직접적인 찬반을 나타내거나, 혹은 인간을 지배자와 피지배자, 압제자와 희생자의 구도 안에 위치시켜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맥간은 워즈워스의 자연에 대한 서술을 정치적 담론에서 도피하려 한 시도로 읽는다. 하지만

정치라는 담론은 인간 본성에 대한 근원적인 고찰과 떼어 놓을 수 없는 대상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워즈워스의 시에서 자연을 마주하는 인간의 모습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정교하게 묘사되는 내적 심리의 움직임은 충분히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첸들리(James K. Chandler)의 주장이 가지는 탁월성은 맥간과 달리 워즈워스의 시들에서 자연이나 시인 자신의 개인적인 기억 등을 표현하는 부분, 즉 얼핏 보기엔 정치성과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부분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혁명의 이상이 이데올로기의 일종으로,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며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 했기에 폭력성을 필연적으로 유발했다고 서술한다(223). 이어서 그는 버크(Edmund Burke)가 주장한 관습(custom)을 “두번째 자연”(second nature)으로 규정하며 이 관습이 “이데올로기의 강력한 적”(great nemesis of ideology; 223)으로서 이성에 선행하는 보다 원초적인 규칙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첸들리는 『서곡』에서 워즈워스가 개인적인 기억들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과거와의 유대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를 현재에 의미 있게 재현함으로써 혁명의 이데올로기가 가진 폭력성에 반기를 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첸들리의 주장이 가지는 맹점은 워즈워스가 불러내는 과거가 직접적으로 시인의 모국인 영국의 전통과 가치를 상징한다고 단정짓는다는 것이다. 워즈워스가 참고하는 과거가 꼭 버크가 강조했던 관습이어야만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며, 워즈워스가 그 과거에서 묘사하는 자연 역시 영국적인 가치로의 회귀라고 해석하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또한, 첸들리는 혁명의 담론이 기계론적 이성에 의해 만들어졌고 과거와의 단절을 천명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성에 선행하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은 버크 및 보수주의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루소(Jean-Jacques Rousseau) 역시 『인간 불평등 기원론』(*Discourse on the Origin of Inequality*)에서 자연과 홀로 마주한 인간, 즉 사회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을 상상하고 추적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어떤 자질로 구성 되었나 라는 명제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사회계약론』(*The Social*

Contract and Discourses)에서 그는 이성으로 구성된 법과 제도에 선행하는 “도덕”(morality; 53)이나 “관습”(custom; 53)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워즈윅에게서 버크의 영향을 주로 읽어낸 찬들러와 달리, 닛트(Gregory Dart)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워즈윅의 시는 “자코뱅적 이상의 철회가 아니라 단지 전략적인 이동이며, 시인이 자유의 패러다임을 영국적 맥락 안에 놓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does not constitute a resignation of the Jacobin ideal, but its tactical transferal. It is the means by which the poet resituates the paradigm of liberty in an identifiably English context; 202-203)라고 주장한다. 닛트는 루소가 이상적인 공화주의의 모델로서 지목한 스위스와 워즈윅이 어린 시절 살았던 영국의 시골 사이의 유사점에 주목하며, 이 두 지역 모두가 당대의 부패한 상업 사회와 대비되는 원시적인 이상향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166). 또한 『서곡』의 초반부에 묘사되듯이, 그는 어린 시절의 시인에게 트라우마를 부여하는 자연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혁명의 실패에 따른 정치적, 역사적 기억들을 자연과 자신이라는 사적인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시인 자신이 다시 공화주의적 이상을 실현할 추진력을 얻는다고 설명한다(166).

하지만 닛트의 주장대로 워즈윅의 시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양상을 단지 자코뱅적 이상의 “전략적” 이동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서곡』의 프랑스 장에서 시인이 겪은 것이 분명한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었을 입장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닛트에 따르면 혁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워즈윅의 혁명의 이념과 열정은 전혀 쇠하지 않았으며, 단지 그 이상의 실현 현장만 영국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찬들러가 보수주의자로서의 워즈윅을 선명하게 그려내기 위해 워즈윅이 시 속에서 자신의 과거와 자연을 마주하는 장면을 영국적인 가치로 회귀하는 장면으로 환원해 버린 면이 있다면, 닛트 역시 워즈윅의 자연을 루소의 이상향인 스위스의 자연으로 환원시키는 면이 있다. 루소의 이상향인 스위스는 단순한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그가 주장하는 직접 민주주의와, 그것을 실현하기에 최적화된 적절히 작은 규모의 국가를 상징하고 있지만, 워즈윅의 시에서 이

런 정치적 체계를 구체적으로 시사하는 부분들을 찾기는 대단히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세 비평가들은 워즈워스의 시에서 목격되는 정치성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표명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워즈워스를 진보 혹은 보수라는 정치적 틀에 귀속시키고, 워즈워스의 시에서 그들의 견해를 뒷받침할 단편적인 '증거' 만을 찾아내려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정치적 사상이 필연적으로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와 그에 대한 입장을 내포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맥간은 워즈워스의 시 속에 등장하는 자연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순수한 의식의 기록"(a record of pure consciousness; 90)이며, 정치적 담론에게서 독자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은폐막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은폐막으로 규정했던 바로 그 부분이 워즈워스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며, 따라서 그 부분이 가장 원초적이면서 강력한 정치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감는 우를 범한다. 찬들러는 맥간과는 달리 워즈워스의 시에 등장하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그 속에서 목격되는 인간 내면의 움직임들이 정치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했지만, 그는 그 중요성의 의미를 영국의 관습과 정치 체제에 대한 존중이라는 좁은 의미의 정치적 입장으로 귀결시킨 면이 있다. 한편, 다투는 진보주의자로서의 워즈워스를 너무나 명료히 그려내려고 한 나머지 결국 워즈워스의 시라는 지극히 불투명한 텍스트들을 자코뱅주의(Jacobinism)라는 단일한 정치적 담론 아래 종속시키려는 우를 범한다.

이 글은 워즈워스가 특정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견 표명을 했다거나, 혹은 그의 시에서 그의 평생에 걸친 사상적 변화의 구체적 근거를 찾아내 그가 보수, 혹은 진보의 궤적을 그리고 있음을 주장하지는 못하고, 이 글의 목적도 그런 것에 있지 않다. 이 글의 논지는 워즈워스가 혁명의 실패를 목격한 후 자코뱅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그리고 그 자체로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단어, 즉 자유, 평등, 혹은 정의 등의 단어 등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음으로써 더 넓은 의미의 정치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넓은 의미의 정치성은 워즈워스가 당대에 새롭게 대두된 공화주의라는 사회 체제 아래에서 특별히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개인과 그 개인의 내면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워즈워스가 그려내었던 자신의 내

면을 성찰하고 외부 세계를 자신들의 주체적 관점으로 인식하고 사고하는 개인의 모습은 공화주의 체제 속에서 주체적인 정치적 참여를 통해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의 모습과 닮아 있다. 하지만 워즈워스가 시를 통해 그려내는 개인의 모습은 공화주의 체제 하의 이상적인 시민의 모습을 조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워즈워스는 개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원초적이고 감정적인 소통의 양상 또한 묘사함으로써 시민의 개념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인간상과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이 글의 1장에서는 『서곡』의 9~12권을 중심으로 워즈워스가 프랑스 혁명의 과격화에 대한 그의 경험을 통해 공화주의 체제 아래에서 개인이 각자 성찰을 통해 공동체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동시에 독자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갖출 필요성을 자각하는 모습을 조명한다. 또한 워즈워스는 9월 대학살 등 프랑스 혁명이 과도한 폭력 사태로 번지는 양상을 경험하며 워즈워스는 자코뱅이라는 소수 집단이 개인의 내면을 투명하게 재현할 수 있다는 루소의 언어관을 명분으로 언어를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화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복잡한 내면을 단순화하며 환원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또한 워즈워스 자신 역시 자코뱅들이 사용했던 혁명의 언어와 명제들에 휩싸여 자신의 눈과 관점으로 현실을 자각하지 못했었음을 반성적으로 회고한다. 그는 혁명의 언어가 불러오는 감정을 미성숙함과 감정의 과잉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내면을 축소하고 환원시키는 당시의 정치적 언어에 대한 대안을 시 쓰기의 소명을 새롭게 자각한다. 그는 대안적 언어의, 즉 시의 소재를 자연과 하층민으로 설정한다.

2장에서는 『서곡』의 6장을 중심으로 워즈워스의 자연에 대한 서술이 어떻게 개인의 내면을 섬세히 묘사하는지, 그리고 그 묘사가 어떤 면에서 루소의 공화주의를 시사하는지 분석한다. 「서정담 시집 서문」("Preface to *Lyrical Ballads*," 이하 『서문』)에서 언급된 "마음의 습관"은 1장에서 언급된 감정의 성숙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워즈워스의 시에서 이는 자연과 인간이 마주하는 구도를 통해 과거가 현재에 의미 있게 새롭게 재현되는 모습으로 구현된다. 시 속에서 자연과 인간의 구

도,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점점을 형성하는 모습은 개인의 내면 안에서 느낌과 사고의 통합으로 이어진다. 시적 상상력에 힘입은 느낌과 사고의 통합은 공화주의의 구조적인 딜레마, 즉 개인의 자유와 가능성이 제한 없이 펼쳐져야 한다는 원칙과 사회 체제 자체의 유지를 위해 개인의 자유가 일부 통제되어야 할 필요성 사이의 딜레마를 순간적으로 해소하는 듯한 모습을 그려낸다. 워즈워스는 개인과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들에 집중함으로써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그로부터 주체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개인이 공화주의 체제 아래에서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주체적 참여가 공동체의 선과 화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3장에서는 「무너진 오두막」과 『서곡』에 드러나는 하층민을 중심으로 2장에서 논했던 시적 상상력의 메커니즘인 “마음의 습관”이 프라이(Paul. H. Fry)의 비인간(nonhuman)성을 공유함으로써 발현되는 모습과 비인간성의 공유를 통해 워즈워스가 그리고자 하는 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비전을 살펴본다. 시 속에서 젊은 화자는 행상인의 마가렛에 대한 이야기를 매개로 비인간성을 경험함으로써 그녀와 존재적 동질감을 느끼고, 이 동질감은 주체와 타자의 벽이 순간적으로 허물어지는 데 기여한다. 이 동질감으로 형성되는 공동체는 공화주의 체제에서 일반 의지가 이상적으로 실현될 조건으로 루소가 꿈은 공동체 의식과 유사한 면이 있다. 하지만 워즈워스가 상정하는 공동체는 감정의 교류와 공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루소가 언급한 정치적 체제의 한 요소로 기능하는 공동체와 차별화된다. 워즈워스는 이 시의 액자식 구성을 통해 마가렛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주체와 타자의 거리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화자와, 당대 현실 속에서 공동체가 해체되는 경험을 하는 마가렛을 같이 묘사한다. 이 두 이야기를 맞물려 서술함으로써 워즈워스는 타자와의 완전한 공감과 그 공감으로 인한 보편적인 인간상과 공동체의 면모를 그려내는 한편, 그 인간과 공동체의 가능성이 현실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대 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에 근거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1. 혁명과 대안적 언어로서의 시:

『서곡』 9-12권을 중심으로

공화주의자로서의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의 신념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글은 「랜다프 주교에게 보내는 편지」("A Letter to the Bishop of Llandaff", 이하 「편지」)이다. 이 글은 랜다프의 주교인 로버트 왓슨(Robert Watson)이 1793년 1월 루이 16세(Louis XVI)가 프랑스 혁명 과정 도중 처형되는 사건에 대한 의견을 『설교집』(*Sermon*) 뒤에 「부록」("Appendix")으로 첨부해 발간한 내용에 반박하여 내놓은 글이다. 주교가 그의 글에서 사건의 과도한 폭력성에 대해 항의하고 군주제 하의 영국 헌법을 옹호했던 데 반해, 워즈워스는 「편지」에서 주교의 견해를 반박하면서 시인 자신의 급진성과 공화주의자로서의 신념을 뚜렷이 나타내었다.

이 글에서 나타나는 견해들 중 일부는 『서곡』(*The Prelude*)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그 중 하나가 프랑스 혁명이 과열되면서 일어난 과도한 폭력 사태들을 정당화하는 내용이다. 『서곡』에서 시인은 "나는 잘못된 철학 때문에, 또는 그들의 이름에 새겨진 광폭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시대를 걸쳐서 쌓여 온 엄청난 양의 죄와 무지 때문에 재앙이 초래되었음을 명백히 보았다"(I clearly saw that neither these nor aught / Of wild belief engrafted on their names / By false Philosophy had caused the woe, / But a terrific reservoir of guilt / And ignorance filled up from age to age; 10. 474-78)¹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학살이나 전쟁 같은 사태는 혁명의 정신이나 이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왕정이 유지되던 오랜 기간 동안 쌓여왔던 부조리나 부작용 등이 한번에 폭발해 일어난 것이라는

¹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이 글에서는 1850년 출판된 『서곡』을 참고하였다.

의견이다. 「편지」에서 시인이 당시 프랑스의 혼란에 대해 “모든 구 정부에서 국가의 억누르는 힘이 필연적으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엔 국민은 합법적 공화정이 상정하는 자유를 남용할 수밖에 없었다”(Coercive power is of necessity so strong in all the old governments that a people could not but at first make an abuse of that liberty which a legitimate republic supposes; 275-77)라고 서술한 것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다.²

또한 전제 군주정에 대한 강한 반감과 루소가 주장한 일반 의지에 대한 옹호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내용이다. 「서곡」에서 시인은 “한 사람의 의지가 다른 모두를 위한 법이 되는 절대적인 통치에 대한 증오”(Hatred of absolute rule, where will of one / Is law for all, 9. 502-03)를 표현함으로써 특정한 계급의 의지에 국가 전체 구성원들의 의지가 종속되는 왕정에 대한 분노와 일반 의지에 대한 존중을 동시에 표명한다. 이와 유사하게 「편지」에서 그는 “내 군주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는, 영원한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다”(My grand objection to monarchy, which is drawn from the eternal nature of man, 387-88)라고 표현하며, 군주제 하에서의 인간 사회를 “인간의 편견과 약함이 개인을 비정상적 상황으로 몰아 넣을 수밖에 없는”(the prejudice and weakness of mankind have made it necessary to force an individual into an unnatural situation, 80) 상황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편지」에서 위즈워스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깊은 공감을 드러낸다. 시인은 “법은, 단지 일반적 의지의 표현”(Laws, being but the expression of the general

² 9월 학살에 대한 위즈워스의 당시의 의견으로 보인다. 이후에 서술할 것이지만, 위즈워스는 학살 광경을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에 대해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위에서 드러나듯이 그는 이 폭력 사태들을 프랑스 사회가 공화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겪는 진통쯤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서곡」에서는 혁명의 과격화에 따른 위즈워스의 강한 정신적 충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놓아버리지는 않았던 혁명의 이상에 대한 애착이 동시에 드러난다.

will, 320)이라고 말함으로써, 법은 행복을 향유하고 싶은 모든 계층의 의지가 사회적 계약의 형태로 표현된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다. 군주제를 “특정한 의지”(particular will, 391, 강조는 원저자), 공화정을 “일반적 의지”(general will, 392, 강조는 원저자)의 발현이라고 규정하며, 일반적 의지가 특정한 의지에 의해 희생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루소의 언어를 통해 공화정을 옹호하는 주장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편지」에서 나타난 그의 공화주의자로서의 신념은 『서곡』의 일부분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하지만 『서곡』은 여러 번에 걸친 개작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시인이 과거의 다양한 시점들을 회고하면서 쓴 글이기 때문에, 다중적인 시간적 시점에서 쓰여진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월이 흐르며 위즈워스가 경험한 것들, 특히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겪은 극심한 사상적, 심리적 변화는 불규칙하게 퇴적된 지층처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누적되어 있으며, 심지어 그 변화의 양상들이 시 내부에서 서로 모순되고 상반되는 모습마저 보인다. 따라서 『서곡』에 드러나는 위즈워스의 공화주의적 신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혁명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시인이 가지고 있었을 법한 의견들만 볼 것이 아니라 당대의 정치적 사건들을 경험하며 시인이 어떠한 심리적, 사상적 변화를 겪었는지도 추적해 보아야 한다.

먼저 시인은 혁명 당시의 단편적인 정치적 사건들에 주목하며, 이로 인해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피력한다. 그를 가장 경악시킨 사건은 9월 대학살인데, 이는 1792년 9월에 자코뱅들이 혁명 반대론자들이 당시 프랑스를 침략했던 오스트리아군에 동조했다는 의심을 가지고 수많은 성직자와 왕당파들을 학살한 사건이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챌들러가 주장했듯이, 그가 프랑스 혁명에서 환멸을 느낀 경험을 단순한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인식론적 위기”(epistemological challenge; 56)로 느낀다는 점이다. 그는 9월 대학살에 대해 “지각 없는 칼이 재판관인 양 사람들이 거기에 빈다”(The senseless sword / Was prayed to as a judge; 10, 43-44)고 표현함으로써 극심한 유혈 사태로 치달아 가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비판한다. 그는 또한 희생자들의 심리에 깊게 공감한다. 시인은

“이미 지나간 두려움이 또 올 두려움과 유사하게 짓눌러 온다”(fear gone by / Pressed on me almost like a fear to come; 10. 71-72)고 말해 폭력에 희생된 사람들의 공포를 상상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죄 없는 희생자들이 두려움 아래 가라앉아 가는”(Innocent victims sinking under fear; 10. 404)³ 모습을 상상하기도 한다. 또한 “나는 불공정한 법정 앞에서 겨우 나오는 목소리와 어지러운 머리로, 그리고 내가 아는 가장 성스러운 곳인 나의 영혼 안에 배신감과 황량함을 느끼며 호소하였다”(I strove to plead/ Before unjust tribunals,-with a voice / Labouring, a brain confounded, and a sense, / Death-like, of treacherous desertion, felt / In the last place of refuge-my own soul; 10. 411-15)라고 고백하였듯이, 시인은 마치 부당하게 고발당해 법정 앞에 서서 공포에 떠는 피고인처럼 당시의 폭력 사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첸들리의 주장처럼, 공포 정치라는 정치적 사건은 위즈워스 개인의 심리적 불안으로 유비되어 묘사되고(57), 이는 그 자신이 사물과 상황을 바라보는 지각 능력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그는 한때 폭력 사태가 일시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만 생각했었고 따라서 사태가 곧 정상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이후에 그는 파리의 곳곳을 배회하며 감금과 학살이 일어났던 감옥이나 궁전, 카루젤 광장 등을 눈에 담으며 자신의 심정을 “어떤 책의 내용이 기억할 만하다는 것은 아는데, 읽을 수가 없는 언어로 쓰여져 잠겨 있어서 말없는 책장에 고통스럽게 질문만 던진다”(Upon a volume whose contents he knows/ Are memorable, but from him locked up, / Being written in a tongue he cannot read, / So that he questions

³ 이 표현은 1805년도 판에는 존재하지 않던 표현이다. 그 외에 “죽음과 같은”(Death-like), “성스러운 곳”(refuge)같은 표현도 1805년도 판엔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근거로 볼 때 1850년 판에는 혁명에 대한 환멸을 보다 강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엄청난 희생자들이 생겼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감도 더욱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를 통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mute leaves with pain; 10. 59-63)라고 묘사한다. 여기서 시인은 이 표현을 통해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힘입어, 그리고 그것을 이상으로 삼은 사람들의 선의에 의해 평등과 자유가 실현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했었지만, 오히려 그의 예상과는 반대로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학살이 일어나게 된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한편으로 그는 똑같은 광경을 보고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어떤 세상에 내가 있는지, 어떤 땅을 밟고 어떤 공기를 숨쉬고 있는지 너무나 깊게 느꼈다”(But that night / I felt most deeply in what world I was, / What ground I trod on, and what air I breathed; 10, 63-65)라고 고백한다. 자신이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이, 끔찍한 학살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역사적 비극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강하게 실감하는 모습이다. 그는 또한 던컨(Duncan) 왕을 죽인 맥베스(Macbeth)의 죄책감을 가지고 “도시 전체를 향해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리라’”(To the whole city, ‘Sleep no more’; 10, 87)고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듣는다.

또한 프랑스 혁명의 폭력적 변질과 함께 그에게 가장 많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준 사건은 그의 조국 영국이 그가 사상적으로 공감했던 프랑스 혁명의 반동 세력이 되어 프랑스에 선전 포고를 했다는 사실이다.⁴ 이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 때를 제외하고는 혁명이라 부를 정도의 감정의 전환은 없었다”(neither

⁴ 영국의 프랑스에 대한 선전포고에 대해 워즈워스는 1850년 판에서 “안타깝고 부끄럽다” (pity and shame!; 10. 265)는, 1805년 판에는 없는 표현을 덧붙인다. 이 표현은 혁명의 발생지인 프랑스가 영국에 혁명의 이상을 전파할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안타깝워서 수정하면서 붙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표현 뒤에 “이 동맹국들과 함께라니!” (with those confederate Powers!; 265)라는 표현이 덧붙는 것을 보면, 위의 안타깝고 부끄럽다는 감정의 표현은 얼마 전까지도 세력 다툼을 벌이던 러시아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와 하루아침에 프랑스라는 공공의 적을 두고 동맹을 맺을 정도로 영국이 부화뇌동 했음을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lapse / Nor turn of sentiment that might be named / A revolution, save at this one time; 10. 270-72)고 말함으로써 이 사건으로 인해 그가 프랑스의 혁명이 폭력 사태로 변했을 때 받은 것 이상의 충격을 받았음을 표명하며, 이제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쪽 같은 길을 걸어왔었지만 “이때만큼은 다른 곳으로 향한 발걸음이었다”(this a stride at once / Into another region; 10. 275-76)라고 고백한다. 이어서 그는 영국이 프랑스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인식 체계가 혼란스럽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당시의 심정을 그는 처음엔 슬픔이라고 표현했다가 곧 말을 바꾸어 “이름 붙일 수 없는 느낌들의 싸움”(A conflict of sensations without name; 10. 290)이라고 표현한다. 당시의 모순적 상황으로 인해 생긴 감정의 혼란이 단순히 그의 생각뿐만 아니라 사물을 지각하고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나름의 생각을 갖게 되는 인식 체계마저 뒤흔들었다는 이야기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건들에 대해 시인은 자신이 혁명에 품었던 기대가 부서지며, 혁명이 지나친 폭력 일변도로 흐르고 있는 데 대한 위기 의식을 느낀다. 그렇다면 혁명은 왜 그렇게 과열되었던 것이고, 위즈워스는 혁명의 실패 원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찰을 가지고 있었을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위즈워스는 「편지」와 『서곡』의 일부를 통해 혁명 옹호론자로서의 입장에서 전제 군주정을 비판한다. 당시 자코뱅들의 입장과 일치하는 그 내용은 자연법에 의거해 만민에게 있어야 할 의지, 혹은 권력을 특정 개인 혹은 계층이 점유하고 또한 이 점유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푸레(François Furet)에 따르면,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따라 왕정이 해체된 뒤 갈 곳을 잃은 권력은, 혁명의 이념대로라면 “인민”(people; 52)이라는 “혁명의 기초적이면서도 신화적인 이미지”(fundamental and mythical image of the Revolution; 52)로 집중되어야 했지만 이 인민이라는 개념이 극히 추상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권력의 “적법성이 인민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구현하고 권력의 활용을 독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속하게 된다”(Legitimacy therefore belonged to those who symbolically embodied the people's will and

were able to monopolise the appeal to it; 48). 그리하여, 위 인용문에서 말하는 권력을 독점하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자유와 평등이라는 언어를 점유한 사람들이다. 푸레는 “언어가 권력을 대신하였는데, 왜냐하면 그 방안만이 권력이 사실은 누구도 지칭하지 않는, 인민에 오롯이 귀속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Language was substituted for power, for it was the sole guarantee that power would belong only to the people, that is, to nobody. 48)라고 말한다. 하지만 군주 대신 권력이라는 “무대의 중심을 차지한 말들은 본질적으로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의 대상이 되며”(hence the spoken word, which occupied centre stage, was constantly under suspicion, for it was by nature ambiguous; 49), 따라서 권력은 매우 불안정한 주체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다시 말해, 군주정이 갑자기 무력화되면서 언어를 선도하는 자가 곧 권력을 잡는 시대가 갑자기 도래하였고, 권력은 언어와 그 언어를 점유한 사람들이라는 매우 불안정하고 애매모호한 주체의 통제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게 된다. 이 불안정성은 언어를 점유한 사람들이 대중의 관심을 끌어 자신들의 권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갈수록 더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며 더 심화된다.

9권에는 위에서 설명한 언어의 발화를 통해 불안정한 기반 위에 있는 권력을 점유하려 다툰 논쟁의 대표격인 팜플릿 전쟁(Pamphlet War)에 대한 시인 자신의 감상이 드러난다. 시인은 “그 날의 뉴스 팜플렛”(master pamphlets of the day; 9. 97), 즉 프랑스 혁명을 비판한 버크의 글에 대항해 페인(Tom Paine)등이 서술한 책자 등을 읽었음을 언급한다. 그리고 그런 책자들이 정치적 기구들의 설립 과정이나 정치적 움직임이 당시의 사건들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느냐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음(9. 100-05)에 실망하면서, 책자들이 한마디로 “자신에게는 느슨하고 엉성해”(were to me / loose and disjointed; 9. 106)보였다고 비판한다. 시인은 진정성을 전달해야 할 언어가 객관적 사실조차도 전달하지 못하고, 대중들을 자극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말의 잔치에 불과해졌음을 인지하고 있다.

위즈워스는 위에서 언급한 말의 잔치의 한 장면을 자신의 기억 속에서 재현하고, 이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말의 잔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다. 그 장면은 바로 루베(Louvet)가 로베스피에르를 향해 “나는 로베스피에르 그대를 고발한다.”(I, Robespierre, accuse thee; 10. 113)라고 외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재현한 후 시인은 우선 루베의 용기를 칭송하지만, 그 이후에 시인은 “내 자신의 눈에는”(with my proper eyes; 10. 124)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이며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장면엔 큰 관심이 없음을 암시함으로써 루베의 고발 장면이 주는 자극과 스스로 거리를 둔다.

또한 위즈워스는 권력이 혁명의 언어를 점유한 소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아차리고 있는 듯하다. 그는 10권에서 “나라의 가장 변방에까지 자유, 삶, 그리고 죽음이 곧 수도를 지배하는 자들의 손에 달릴 것”(Liberty, and Life, and Death would soon / To the remotest corners of the land / Lie in the arbitrement of those who ruled / The capital city; 10. 125-28)⁵이라는 말을 한다. 수도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결정은 시인이 「편지」에서 주장한 것처럼 분명 민중의 일반 의지가 수렴되고 실행되는 구체적 체계인 법에 의거해야만 하고, 권력의 사용은 법이라는 제도를 거쳐 그 권력의 원천인 인민의 의지와 최대한 일치되게 구현되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시인은 당시 현실에서 일반 의지가 합리적이고 숙고된 실행 체계에 따라 해석되지 못하고 자유와 평등을 말하는 소수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휘둘러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즈워스는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특정한 비유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⁵ 9월 학살 이후 혁명 세력들은 자코뱅(Jacobin)과 지롱드(Jironde)로 본격적으로 갈라져 혁명의 방향을 놓고 서로 정쟁을 일으킨다. 로(Nicholas Roe)는 『서곡』 10권의 위 인용문을 반혁명 세력과 외세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루이 16세(Louis XVI)의 처형 여부를 놓고 지리하게 계속되었던 두 세력간의 정치적 알력을 목격한 데 대한 감상으로 간주한다(79).

자코뱅들이 자신이 부리는 언어의 파괴력을 자각하지 못한 채 권력을 유지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용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시인은 어린 아이라는 상징물에 빗대어 혁명의 사태가 미성숙한 열정이 초래한 일임을 강조한다. 시인은 당시 혁명의 과도한 열정을 “풍차의 움직임처럼 바람이 새로 불어 그의 눈앞에서 날개를 돌리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날개가 더 빨리 돌아가도록, 바람개비 잡은 팔을 쭉 펴고, 얼굴을 돌풍에 마주하며 힘껏 달리는 아이”(The motion of a wind-mill; though the air / Do of itself blow fresh, and make the vanes / Spin in his eyesight, that contents him not / But, with the plaything at arm’s length, he sets / His front against the blast, and runs amain, / That it may whirl the faster; 10, 369-74)에 비유한다. 시인은 이 비유를 통해 어린 아이의 경솔함과 맹목적인 열정의 모습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투사시킨다. 또한 시인은 외국의 침략에 맞서 프랑스가 전쟁에서 이긴 사실에 대해 “헤라클레스 같은 공화국이 그 팔을 뻗어 아기 신의 힘으로 요람 주변의 뱀들을 목졸라 죽였다”(The Herculean Commonwealth had put forth her arms, / And throttled with an infant godhead’s might / The snakes about her cradle; 10, 391-92)라는 비유를 들어 묘사한다. 현재의 힘의 작용의 주체를 아기라는 존재에 투영시킨 이 비유를 통해 독자들은 시인이 권력이 매우 미성숙하고 따라서 위험을 내포한 열정에 의해 발휘되고 있는 사태를 경계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시인은 권력의 주체가 갑자기 사라지는 과정에서 그 주체가 언어로 옮겨갔다는 변화를 오롯이 인지하지는 못했어도, 위에서 묘사된 미성숙함을 나타내는 상징들을 통해 혁명 당시 권력의 주체가 매우 불안정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히 인지한 듯하다.

그렇다면, 당시 혁명을 실패로 전락시킨 주요 인물들인 자코뱅들의 언어는 정확히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었는가? 푸레가 문제 삼는 내용은 자코뱅들이 루소의 언어관을 맹신해 이분법적 잣대로서의 언어를 만들고, 마침내는 언어를 권력의 점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점이다. 푸레는 로베스피에르를 위시한

공포 정치의 주동자들이 루소의 언어관을 그대로 따라 “언어는 더 이상 숨겨진 의도에 종사해서는 안 되고 거울처럼 가치들을 반영해야 한다”(language must no longer serve to hide intrigues but reflect values as in a mirror; 48)는 견해를 실현하는 데만 집중하였고, 따라서 루소가 주장한 재현의 문제를 무시했기 때문에 “재현은 끊임없이 배제되거나 감시 아래 놓인다”(representation was ruled out or perpetually put under surveillance; 48)고 설명한다⁶.

다시 말해, 로베스피에르는 개인에게 언어로 다 재현할 수 없는 내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투명성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내면을 공화주의자 혹은 배신자라는 이분법으로 환원하였다. 쾨레에 의하면, 이분법에 따라 개인의 내면을 환원하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갈수록 더 많은 개인들이 진정한 애국자의 지위에서 제외된다”(it gradually excluded more and more individuals from the ranks of true patriots; 68). 투명성이라는 명목 아래 이분법으로 사람의 내면을 판단함으로써 사회에는 배제와 통제만이 남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민주 사회가 구동하는 기본 원리인 “합의는 존재의 이유를 잃고(the debate lost its raison d’etre; 70), “동의 혹은 죽음 외의 정치적 선택은 남아 있지 않게”(nor any room for politics except in consensus or death; 70) 된다. 쾨레가 지적한 자코뱅들의 언어관이 가진 문제점을 정리해 보자면, 그들은 내면과 진정성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언어라는 전제를 실현하려 하였지만, 그 이상을 현실에서 오롯이 구현한 결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복잡하고 섬세한 내면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분법이라는 극도로 단순한 잣대에 따라 피아를 규정함으로써 갈수록 더 넓은 범위의 타인을 혁명의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언어로 하여금 의미와 진정성을 온전히 전달하려 한

⁶ 유명숙 역시 쾨레와 비슷한 맥락에서 “구체제”로 명명한 정치체제와의 단호한 결별이 기존의 의미체제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확신한 과격 자코뱅들은 루소의 화두인 ‘재현’까지 “구체제”의 잔재로 폐기해버린다”(205)고 자코뱅들의 과오를 조명한다.

시도는 역설적으로 언어가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고 오히려 이분법적 구도를 형성해 권력과 폭력의 남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전용되는 결과를 낳는다. 언어가 가진 투명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내면은 오히려 이분법 속에 갇혀 재현될 곳을 잃고 극도로 단순화된다.

워즈워스는 「비문에 대한 에세이」(“Essays upon Epitaphs”)에서 언어가 가진 파괴적인 힘에 대해 논하는데, 여기서 시인이 당시 자코뱅들의 언어 사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란 하찮게 여기기엔 선을 위한 것이든 악을 위한 것이든 너무나 강력한 도구이다. 언어는 모든 다른 외부적 힘보다도 우위에서 생각을 지배한다. 만약 언어가 생각의 화신이 아니라 옷에 불과하다면, 해로운 선물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 선물은 미신이 횡행하던 시대의 이야기에 나오는 독이 묻은 의복 같아서, 그것을 입은 희생자를 올바른 정신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삼켜 버리는 힘을 가졌다. 언어란, 마치 중력의 힘이나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만약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고, 먹이고, 조용히 놓아두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소리없이 타락시키고, 와해하고, 소진해 버리게 하고, 망가뜨리는, 거스르는 정신이 된다.

Words are too awful an instrument for good and evil to be trifled with: they hold above all other external powers a dominion over thoughts. If words be not (recurring to a metaphor before used) an incarnation of the thought but only a clothing for it, then surely will they prove an ill gift; such a one as those poisoned vestments, read of in the stories of superstitious times, which had power to consume and to alienate from his right mind the victim who put them on. Language, if it do not uphold, and feed, and leave in quiet, like the power of gravitation or the air we breathe, is a counter-spirit, unremittingly and noiselessly at work to derange, to subvert, to lay waste, to vitiate, and to dissolve; (155)

유명속에 따르면, 워즈워스는 위 인용문에서 “언어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시 생각함으로써 주어진 의미체계와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언어를 도구화한 혁명의 실패를 사유한다”(206)⁷. 위 인용문에서 시인은 당시 자코뱅들이 루소가 제기한

⁷ 프랑스 혁명 당시 자코뱅들의 언어의 잘못된 사용과 관련해 홉킨스(Brooke

재현의 문제는 무시하고 단지 진정성을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루소의 언어관에만 집착하여 사람들의 언어를 이분법적 구도 아래 단순화하고, 언어를 자신의 권력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전용함에 따라 언어가 본래 지니고 있던 의미마저 상실하게 되는 모순이 생겨났음을 지적한다. 위 인용문에서 시인은 언어를 단순히 도구로만 간주할 경우, 헤라클레스가 독이 묻은 옷을 입었다가 온몸이 불타 죽었던 것처럼 ‘독 묻은 옷’ 인 언어가 거꾸로 ‘몸’ 인 개인의 내면과 지성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정치논리에 맞춰 언어를 수단화하는”(유명숙 209) 자코뱅들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투명성을 가진 언어관에 집착하여 사람의 내면을 이분법 아래 환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9권의 한 장면을 들 수 있을 듯 하다. 9권에서 시인은 자신이 공화주의자로 자라나게 된 배경을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찾아낸다. 시인은 자신이 “가난하고 옛날의 소박함을 더 간직하고 있는 지역에서 태어났고”(Born in a poor district, and which yet / Retaineth more of ancient homliness; 9. 215-16) 추후에 캠브리지에서 수학하게 되었을 때에 그곳이 “공화국의 어떤 면모를 보유하고 있었다”(they held something up to view of a Republic; 9. 225)고 해석한다. 또한 시인은 자신이 살았던 대학가에서 “부와 계급은 재능, 고귀함, 근면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졌다”(wealth and titles were in less esteem / Than talents, worth, and prosperous industry; 9. 231-32)라고 주장한다. 이 인용문에서, 워즈워스는 자신이 살던 시골과 또한 자신이 수학했던 캠브리지를 공화주의적 정치 시스템의 이상적인 덕목들이 실천되던 곳으로 간주한다. 시인은 캠브리지의 민주적인 환경과 더불어

Hopkins) 역시 유용한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서곡』의 11권에서 워즈워스가 자유라는 단어의 기표를 이상화해 자유라는 이름 아래 폭력과 고통을 정당화했던 자코뱅들의 오류를 워즈워스가 “열렬한 혁명 지지자”(An active partisan; 11. 153)였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에서 발견한다고 주장한다.

“자연의 지고함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로운 힘의 존재”(presences of God’s mysterious power / Made manifest in Nature’s sovereignty; 9. 234-35)를 느끼고 “고서를 익힘”(fellowship with venerable books; 9. 236)으로써 “동등한 권리와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the government of equal rights / And individual worth; 9. 242-43), 즉 공화정을 이상적인 정부의 형태로서 환영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서술을 통해 워즈워스는 공화주의자로서의 자신의 정치적 이상이 형성되었던 궤적을 자신의 실제 경험에서 찾고 확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워즈워스가 보수화되지는 않았다는 데 없이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9권의 후반부에서 소를 끌고 가는 소녀를 묘사할 때 시인은 위의 과정을 통해 정립한 공화주의자로서의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현실을 해석하는데 일방적으로 투영시켜 현실 속의 한 개인을 정치적 논리로 관념화시키는 우를 범한다. 시인은 “굶주림에 물어뜯긴 소녀는, 길에서 먹이를 주워먹는 송아지를 묶은 끈을 팔에 매고, 그 송아지의 움직임에 따라 기어감으로써 겨우 그 걸음걸이를 유지하고 있었다”(A hunger bitten girl, / Who crept along fitting her languid gait / Unto a heifer’s motion, by a cord / Tied to her arm, and picking thus from the lane / Its sustenance; 9. 510-14)라고 소녀를 묘사함으로써 그 소녀가 겪고 있었을 법한 괴로움과 비참함을 극대화시킨 후, “그 광경을 보고 내 친구는 흥분하여 말했다. ‘저런 광경에 반대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다’”(At the sight my friend / In agitation said, / ‘Tis against that / That we are fighting’, 9. 516-18)라고 덧붙인다. 여기서 일견 언어는 매우 투명하게 개인의 내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참한 생활상을 보여주는 소녀는 그 광경을 연출했으리라 간주되는 계층, 즉 구제도 아래 특권을 누리는 귀족과 왕당파를 혁명의 대의 아래 벌할 당위성을 확보해 주며, 보퐁과 워즈워스 역시 위 장면을 보고 감정이 격동됨을 느끼고 혁명의 이상을 좇아 투쟁을 결심한다.

하지만 시인이 이 장면을 재현함으로써 수행하고 있는 작업은 사실 투명성을

가장한 언어가 개인의 내면을 피아의 이분법 아래 환원하는 우를 다시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반성적으로 회고하는 것이다. 린덴버거(Herbert Lindenberger)는 “독자들은 워즈워스가 그들로 하여금 소녀를 정치적인 상징물로 받아들이기를 의도하는 순진함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reader is also struck by the naiveté with which Wordsworth expects him to accept her as a political emblem; 264)라고 서술하며 이 부분이 워즈워스의 다른 부분에서의 인물에 대한 묘사와 위화감, 혹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의 지적처럼, 이 장면에서 보퓌의 말은 가난한 소녀를 피지배자, 혹은 프랑스 혁명의 수혜자로 설정함으로써 소녀를 정치적 상징물로 환원시키고 있다. 이는 혁명의 적과 혁명의 동지라는 적과 아군의 구도를 설정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였던 자코뱅의 언어 사용과 유사하다. 또한 여기서 시인은 자극적인 언어를 무기로 대중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당시 자코뱅들의 수사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그는 언어를 통해 소녀의 비참한 모습을 시각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의 감정을 격동시키고, 그 감정을 소녀를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만들었으리라 예상되는 사람들, 즉 혁명의 가상적인 적인 전제 군주와 왕당파에게 투사하게 만듦으로써 혁명을 정당화한다.

시인 역시 위 장면에서 관찰될 수 있는 일반화와 관념화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듯, 자신이 아닌 친구인 보퓌(Beaupuy)로 하여금 문제가 되는 말을 발언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과거의 자신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이후의 개인을 묘사하는 서술에서도 시인은 여기서 보여진 것처럼 하층민 개인을 혁명 또는 계급 투쟁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피해자의 상징처럼 활용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시인이 묘사하는 개인의 모습은 그 개인의 자세한 묘사 자체에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인다.⁸

⁸ 1805년 판에서는 이 소를 끌고 가는 소녀에 대한 서술 이후에 줄리아(Julia)와 보드라쿠르(Vaudracour)의 이야기가 붙어 있었지만, 1850년 판에서는 삭제된다. 이 이야기의 요지는 신분제의 부조리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젊은 남녀의 멜로드라마이다. 이 이야기를 삭제함으로써 워즈워스는 소를 끌고 가는 소녀에서 보여주었던, 독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이를 정치적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알레고리를 정당화하는 도

위에서 언급한 장면 외에도 『서곡』의 몇몇 서술에서 시인은 자코뱅들의 언어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표명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혁명의 정치적 상황들에 대한 일종의 공황 상태를 자신의 인식 체계의 혼란이라는 양상으로 서술하였던 시인은 11권과 12권의 서술에 이르러 한층 차분한 표현으로 그런 인식의 혼란이 자신의 시적 상상력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은 그가 혁명이 폭력 사태로 변질됨에 따라 받은 충격을 시각이 자신의 감각에 전달한 폭력에 비유한다는 것이다. 그는 혁명의 담론에 도취되었던 자신을 “선명하지만 깊지는 않은”(Vivid though not profound; 12, 142) 시각적 감각에만 의존하였다고 풀이한다. 그리고 그는 그가 경험한 혁명의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가까운 열정”(Passion over-near ourselves; 11, 58)이라고 규정하며, “현실은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강렬해서, 시의 신성함을 해친다”(Reality too close and too intense...would profane the sanctity of verse; 11, 59-61)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서 시인이 보고 있는 현실 속의 광경들, 즉 많은 사람이 눈 깜짝할 사이에 죽어 나가고, 프랑스의 곳곳이 방화로 인해 불타오르는 광경들은 분명히 현실 속에서 일어난 장면이면서도 그 동력은 어찌 보면 현실과는 동떨어진 광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앞서서도 설명하였듯이, 이 학살은 언어가 본래 대표하던 의미를 잃어버리고, 진정성을 그대로 투영한다는 이상적인 언어관에 도취되어 있던 사람들, 즉 지극히 무자비하고 비현실적으로 변한 권력의 주체에 의해 수행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시인은 시각이라고 비유한 경향, 즉 당대 정치적 사건의 추이에만 집중하는 태도가 오히려 피상적인 사건의 모습 이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현실을 인지하는 시야를 흐릴 수 있으며, 나아가 그의 시적 상상력마저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듯하다. 여기서 그가 호소한 시적 능력의 손상은 10권에서 우연히 만난 어떤 여행자에 의해 “로베스피에르가 죽었다”(Robespierre is dead!; 10,

구로 사용함으로써 시 속의 개인이 지워지는 서사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한 듯하다.

573)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장소인 “레벤 강의 넓은 어귀에 매끄럽게 펼쳐진 모래사장”(Over the smooth sands / Of Leven’s ample estuary; 10, 514-15)의 근처에서 그의 어린 시절의 스승이었던 윌리엄 테일러의 묘지를 보고 그가 시인이 되도록 격려해 준 스승의 기억을 떠올림으로써 시인의 소명을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보다 본질적인 현실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언어가 본래의 의미 체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시인은 내면 속에서의 숙고를 통한 성숙을 주장한다. 10권에서 시인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칭송한 후 “그러나 가장 밝은 것들은 지금 내 마음이 숙고하게 만드는 것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슬픈 반대향을 이끌어 내곤 한다.”(But brightest things are wont to draw / Sad opposites out of the inner heart, / As now their pensive influence drew from mine; 10, 528-30)⁹라는 말을 덧붙인다. 이 인용문에서 시인이 사용한 “내면”(inner heart)과 “사색적인”(pensive)같은 단어들은 『서문』에서 피력한 그의 핵심적 시론, 즉 시는 “즉각적인 강력한 감정의 흘러넘침”(the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s; 264)이되 그 감정은 “평온 속에서 숙고된 감정에서 기원한다”(it takes its origin from emotion recollected in tranquility; 264)라는 주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워즈워스는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일어난 거대한 규모의 정치적 사건들과 그 흐름을 주도했던 자극적인 언어의 영향이 정신적 공황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사물을 피상적으로 보게 해 그의 시적 상상력마저 위협에 처하게 하였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 그는 그가 인식하는 사물의 인상과 이미지들을 보다 고요한 내면 속에서 사색을 통해 거리를 두고 봄으로써 그의 시야를 회복함과 동시에 그의 시적 상상력을 성숙시키려 한 것이다.

⁹ 이 표현은 1805년 판엔 존재하지 않던 구절이다. 과거의 기억에 대해 숙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자 했던 시인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서문」을 보면 워즈워스는 그 자신이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특정한 개인을 정치적 관념 아래 환원시킴으로써 오히려 그 개인이 가진 섬세한 내면과 정신을 시로 온전히 옮기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한 듯하다. 다시 말해, 워즈워스는 변함없이 공화주의의 이상과 이념을 신봉하는 듯 보이지만, 자신이 묘사하는 사람들과 자연에 '공화주의'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그들로부터 발견한, 진정한 공화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오히려 표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염려한 것 같다. 「서문」에서 그는 "시골에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박한 삶이 시의 소재로 선정되는데 왜냐하면 그런 환경 속에서 없어서는 안될 마음 속의 열정이 숙성되기에 더 나은 토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Low and rustic life was generally chosen because in that situation the essential passions of the heart find a better soil in which they can attain their maturity; 245)라며 여전히 시골 자연의 사람들과 자연을 시 쓰기에 이상적인 소재로 삼고 또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덕성을 발견해내려 하지만, 「서곡」의 9권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특정 정치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상징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서문」에서 워즈워스는 "시인은 단 한 가지 조건 안에서만 써야 하는데, 이름하여, 인류에게 즉각적인 기쁨을 줄 필요 말이다"(the poets writes under one restriction only, namely, that of the necessity of giving immediate pleasure to a human Being; 256)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이 어울리지 않게도 이어서 그는 "시는 모든 글쓰기 중 가장 철학적이다"(Poetry is the most philosophic of all writing; 256)라고 주장하거나, 시인에게 "그는 인간 본성을 수호하는 반석이다. 유지하고 보존하는 자이다"(He is the rock of defence of human nature; an upholder and preserver; 258)라는 등의 거창한 타이틀을 붙인다. 이 두 가지 상반되어 보이는 서술을 종합해 보면, 워즈워스가 생각하는 시는 알기 쉬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에 원초적으로 작용하여 위안을 주는 언어임과 동시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 등의 지식 체계보다 더 가치 있는 가르침을 전달하는

언어이다. 위 구절은 시인이 기존의 정치적 담론들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언어를 정치적인 제목들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궁극적인 정치적 이상을 지향하고자 했음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의 정치적 언어에 깊은 회의와 한계를 느낀 시인이 그 대안으로 선택하는 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며, 그 시의 소재는 무엇일까? 일단 『서곡』의 프랑스 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 중 하나는 자연인 것으로 보인다. 11권은 정치적 이야기를 소재로 삼다가 자연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가는 전환점에 있는 장이다. 시인은 혁명에 대한 환멸과 고드윈주의의 심취 끝에 마주한 절망에 빠져 있다가, 동생인 도로시의 목소리가 자연 속 시냇물처럼 들리게 되고, 이어서 자연이 그의 시인으로서의 소명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고백한다(11. 321-58).

또 하나 워즈워스가 시적 언어의 소재로 삼는 것 중 하나로는 평범한 사람들, 혹은 하층민을 꼽을 수 있다. 워즈워스는 『서곡』에서 일반 시민들, 특히 하층민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덕성에 대해 말한다. 예를 들어 그는 13권에서 “광인”(Bedlamites; 13. 156), “상스러운 부랑아”(uncouth vagrants; 13. 157)들에게서 부주의한 눈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인간 영혼의 깊이를 본다“(Depth of human souls, / Souls that appear to have no depth at all / To careless eyes; 13. 166-68)고 규정하며, “이름 없는 소박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진리를 듣는다”(There I heard; / From mouths of men obscure and lowly, truths / Replete with honour; 13. 182-84)고 말한다.

2. 공화주의의 딜레마: 『서곡』 6권을 중심으로

앞에서는 푸레의 견해를 참고해 로베스피에르로 대표되는 자코뱅들의 공포 정치가 내면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언어관에 집착한 나머지 개인의 내면을 이분법적 잣대 아래 환원시킨 결과라는 사실을 조명하였다. 그렇다면, 워즈워스는 앞에서 이야기한 자코뱅들의 언어가 가진 과오들에 대한 대안을 자신의 시를 통해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이 장에서는 자연에 대한 묘사를 중심으로 워즈워스가 자신의 시에서 외부 세계와 마주한 개인의 내면을 얼마나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는지를 시인이 혁명의 정치적 담론이 유발하는 감정의 과잉에 대한 대안으로 내어놓은 속고의 개념이 마음의 습관"이라는 시적 상상력의 발현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마음의 습관에 따른 섬세한 내면의 묘사가 시인이 품었을 법한 정치적 이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조명하도록 하겠다.

폴커(Brian Folker)에 의하면 "민주주의 이념과 낭만주의 미학 이론 사이의 중요한 교차점은 시민의 양심의 자유와 시인의 비전적인 상상력 사이의 유사점에서 찾을 수 있다"(An important point of intersection between democratic ideology and romantic aesthetic theory can be found in the similarity between the citizen's freedom of conscience and the poet's visionary imagination; 169). 더 자세히는, 폴커에 의하면 워즈워스는 자신의 시에 공화주의 이념이 가지는 딜레마, 즉 개인의 의지와 자유, 양심을 중시하고 이들이 최대한 제한 없이 발현되는 것을 이상적으로 추구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사회의 틀과 체제의 유지를 위해 개인 의지의 발현이 통제될 수 밖에 없는 모순에 대한 고민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169-170). 낭만주의 시인들은 공통적으로 일반 사람들과 인식의 틀을 공유하려 하는 시인의 모습과 초월적인 권위를 가지고 고양된 상상력의 힘을 구현하는 예언자적인 시인의 모습을 모두 보여줌으로써 계약에 의해 묶인 시민의 모습과 제한 없는 자유를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개인 사이의 긴장을 시사한다(170). 워즈워스의 경우, 폴커가 이 긴장을 보여주는 예로 드는 구절은 『서문』에서 워즈워스가 자신을

시인으로 규정하는 부분이다. 폴커에 의하면, 워즈워스는 시인이라는 존재를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사람”(He is a man speaking to men; 255), 즉 수많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 위치해 있는 평범한 사람으로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더 생생한 감수성과, 더한 열정과 애정, 인간 본성에 대해 더 높은 이해를 소유하였으며 일반적인 인간에게 기대될 수 있는 것 보다 더 복합적인 영혼을 가진 사람”(more lively sensibility, more enthusiasm and tenderness, who has a greater knowledge of human nature, and a more comprehensive soul, than are supposed to be common among mankind; 255)이라고 말하며 시인 자신이 가진 상상력의 위대함을 강조한다(173).

루소 본인의 글에서도 역시 위에서 언급한 공화주의의 딜레마에 대한 고민을 읽을 수 있다. 루소는 사회 계약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나 다름없는 자연 상태에서부터 개인과 그의 의지, 자유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의지와 “힘을 응집시켜서”(By aggregation, of a sum of forces; 13) “오직 하나의 동기에 의해”(means of a single motive power; 13)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여기서 루소는 “어떻게 개인이 자신의 이해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리고 자신을 보살필 의무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의지와 힘)을 구속할 수 있는가?”(How can he pledge them without harming his own interests, and neglecting the care he owes to himself?; 13)를 고민한다. 이 딜레마에 대해 루소 역시 최종적인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지만, 개인의 의지의 자유와 사회 체제의 유지를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 중 그가 중시하는 쪽은 단연 개인의 의지와 권리 쪽인 듯하다. 그는 “사회 계약을 통해 인간이 잃는 것은 그의 자연적 자유와 그가 얻으려고 하는 것과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무한한 권리이다. 그가 얻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다”(what man loses by the social contract is his natural liberty and an unlimited right to everything he tries to get and succeeds in getting; what he

gains is civil liberty and the proprietorship of all he possesses; 19)라고 사회 계약의 효과를 정리한다. 이 주장을 통해 루소는 자신의 자유를 일반 의지에 내어 줌으로써 오히려 계약의 보호 아래 이전보다 나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역설적인 주장을 완성시키는 셈이다.

위에서 설명한 자연적 자유가 시민으로서의 자유로 전환되고, 개인이 바뀐 자유의 모습을 더 낫다고 생각하기 하기 위해서는 사회 계약이라는 제도에 의한 개인의 교육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루소는 사회 제도를 만드는 입법자들은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ought to feel himself capable, so to speak, of changing human nature; 38)라고 주장하면서, 교육의 목적이 “자연이 부여한 물리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를 전체의 부분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바꾸는 것”(substituting a partial and moral existence for the physical and independent existence nature has conferred on us all; 38)에 있다고 말한다. 전체의 부분이 됨으로써 개인은 그의 의지를 온전히 일반 의지에게 헌납할 수 있게 된다.

어떻게 개인의 의지를 사회 제도에 의해 형성된 일반 의지에 헌납한 상태가 개인에게 더 자유롭게 느껴지는지, 루소는 이 역설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회 계약에 의한 이성의 습득과 이에 따른 시민으로서의 개인의 재탄생을 루소는 단순히 사회 규범에 머리 숙이고 순응하는 개인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개인의 의지를 일반 의지에 내어 놓음으로써 변하게 되는 개인을 루소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의 능력은 단련되고 계발되며, 그의 사고는 확장되며, 그의 감정은 고매해지고, 그의 영혼 전체는 고양되어서 이 새로운 상태의 남용으로 그가 떠나온 자연 상태 이하로 떨어지지만 앓는다면 그는 자신을 자연 상태에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해 주어 우매한 상상력을 가지지 못한 동물 대신 지적이면서 인간인 존재로 만들어 준 다행스러운 순간을 계속해서 찬양할 것이다.

his faculties are so stimulated and developed, his ideas so extended, his feelings so ennobled, and his whole soul so uplifted, that, did not

the abuses of this new condition often degrade him below that which he left, he would be bound to bless continually the happy moment which took him from it for ever, and, instead of a stupid and unimaginative animal, made him an intelligent being and a man; (19)

위 인용문에 따르면, 루소는 인간이 그들의 권리를 계약을 통해 내어 놓음으로써 오히려 자연 상태의 인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품성과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거듭나며 이에 따른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이상을 펼치는 것이다.

다만 워즈워스는 인간 본성의 변화가 사회 계약에 따라 인간이 만든 제도 아래에서 온전히 가능하다고 한 루소와 달리, 자연이 인간에게 가지는 교육적인 역할을 일부 긍정하는 것 같다. 풀커는 위에서 이야기한 개인의 의지와 자유를 최대한 제한 없이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는 민주주의 이념과 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수호를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당해야만 하는 요소 사이의 갈등과 관련해 똑같은 사회 계약론을 주장한 사람들이지만 서로 자연관에 차이가 있었던 두 인물, 그로티우스(Hugo Grotius)와 루소의 의견이 『서곡』에서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루소는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회 계약은 온전히 인간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일반 의지에 개별 의지를 헌납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홉스가 주장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를 타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로티우스는 루소와 달리 자연, 혹은 자연법 자체가 인간을 선하게 하는, 일종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175). 풀커에 의하면 『서곡』에서 워즈워스는 루소가 주장하였듯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가 가진 힘을 중시하면서도, 그로티우스의 견해와 유사하게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자연의 모습을 그려낸다(177).

풀커의 말대로 『서곡』에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자연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부분은 1권에 나타나는 중요한 장면 중 하나, 즉 어린 시절의 워즈워스가 자연을 마주할 때일 것이다. 그 중 가장 유명한 부분이 배를 훔쳐 타다가 그의 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자연물인 커다란 봉우리를 마주하는 장면이다.

그때, 그때까지 지평선의 끝이었던 거대한 봉우리가,

검고 거대한 봉우리가,
 바위 절벽 뒤에서 자발적 힘으로 가득 차서
 머리를 쳐드는 듯 했네. 나는 노를 젓고 또 저었고,
 그 암울한 형체는 여전히 자라듯이 커져
 나와 별들 사이에 탑처럼 치솟았네, 그리고 여전히
 그것 자체의 목적을 가진 것처럼
 살아 있는 것처럼 뜰뜰한 동작으로
 내 뒤를 성큼성큼 따라오는 것 같았네.¹⁰

When, from behind that craggy steep till then
 The horizon's bound, a huge peak, black and huge,
 As if with voluntary power instinct
 Upreared its head, I struck and struck again,
 And growing still in stature the grim shape
 Towered up between me and the stars, and still
 For so it seemed, with purpose of its own
 And measured motion like a living thing,
 Strode after me. (1, 377-85)

위 인용문에서 시인은 자연물인 “검고 거대한” 봉우리에 위압감을 느끼고 배가 움직임에 따라 그의 시야에 봉우리가 갑자기 들어오는 현상을 마치 봉우리가 별도의 인격, 혹은 신성을 가진 양 “머리를 쳐들었다” 고 표현한다. 이 위압감에 화자는 봉우리가 “성큼성큼 그를 쫓아오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배를 훔쳐 탈 때의

¹⁰ 위 인용문에서 “암울한 형체”(grim shape)는 1805년 판에는 단지 “거대한 절벽”(the huge cliff; 1, 409)이라는 단어로 표기되어 있다. 이외에 1805년도 판의 “솟아오르다”(rose up; 410)라는 표현이 1850년 판에서는 “탑처럼 치솟았다”(Towered up)이라고 바뀌는 등 1850년 판에서는 1805년 판에 비해 절벽이 형성하는 이미지가 더 공포스러워지고 시인에게 더 강력한 정신적 충격을 주는 뉘앙스로 바뀌어 있다. “그것 자체의 목적”(purpose of its own)이라는, 절벽을 마치 인격체처럼 묘사하는 표현도 1805년 판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표현이다. 워즈워스는 이 부분의 개작을 통해 자연이라는 존재가 시인의 인식적 상태에 강한 충격을 주는 모습을 더 강조해서 묘사하고 싶었던 듯하다.

들뜬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그는 무거운 기분으로 배를 되돌리게 된다.

위즈워스에게서 버크의 흔적을 읽어내는 데 집중한 학자인 찬들러는 위 인용문을 시인의 “잘못 의도된 의지”(misguided will)가 그 의지의 “적대자”(adversary; 211)인 자연에 의해 바로잡힌 사례라고 주장하며, 어린 시절의 시인이 절벽을 마주하고 배를 돌려 돌아가는 장면을 “오직 의지의 후퇴만이 그 적대자를 물리칠 수 있다”(only the will’s retreat can defeat this kind of adversary; 212)는 원칙이 적용된 결과로 해석한다. 그의 주장대로, 위 인용문 전에 시인이 충동에 휩싸여 배를 훔쳐 탈 때 그는 “그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에 차 직선으로 곧장 목표한 지점에 닿으려 했으”(Proud of his skill, to reach a chosen point / With an unswerving line; 368-69)며, “나는 내 시선을 저 바위 절벽의 정상 위에 고정시켜 놓고 있었다”(I fixed my view / Upon the summit of a craggy ridge; 1, 369-70)라고 고백한다. 여기서 자연은 시선과 목표가 한 곳에 고정되어 맹목이나 다름없는 시인의 인식적 상태에 강한 반향을 가져와 시인을 맹목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교육적 역할을 한다.

찬들러의 주장이 지니는 탁월함은 위와 같은 위즈워스의 개인적이고 심리적 경험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데 있다. 그는 「무너진 오두막」에서 행상인이 젊은 화자에게 말할 때처럼 나이를 먹은 시인이 어릴 적의 자기 자신을 향해 말하는 장면을 스스로 연출함으로써 어릴 적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있다고 말한다. 찬들러에 따르면, 그 재해석의 구체적인 방향은 시인 자신의 개인적인 과거의 장면들을 현재에 불러옴으로써 자신의 과거에 받은 단편적인 느낌들이 현재에 이르러 일종의 재현으로 다시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시인은 현재의 자신과 과거와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간다는 것이다(210). 찬들러는 버크가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미래에 도래할 이상적인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합리주의(rationalism)자들을 비판하였으며, 위즈워스는 버크의 영향을 받아 과거와의 접점을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불러옴으로써 이 둘이 서로 섞이고 재창조되는

방식으로 찾았다고 해석함으로써 워즈워스의 시에 보수라는 정치성을 부여한다(196).

채들러는 과거가 현재와 접점을 맺고 과거의 이미지들이 그 자체로 현재에서 시인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모습을 시인이 외부 사물로부터 받은 느낌과 생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혹은 인식과 창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으로 읽어낸다. 그는 위의 노를 저어 가다 되돌아오는 경험 이후에 워즈워스가 체험한 “알 수 없는 존재 방식들에 대한 희미하고 단정할 수 없는 느낌”(a dim and undertermined sense / Of unknown modes of being; 1, 392-93)이 1권의 말미에 과거 아이 때의 경험이 현재의 시를 쓸 때의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잊힌 사물을 대신하는 모호한 느낌들”(obscure feelings representative / Of things forgotten; 1, 606-07)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한다.

-그리고 저속한 기쁨이 제 무게에 겨워
스스로 희미해져 기억에서 사라질 때,
그 기쁨의 목격자인 장면들은
구체적 형상으로 머릿속에 또렷이
그려지고, 눈에는 일상적인 광경으로
보였다네. 그래서 깊은 인상을
남기는 두려움의 힘에 의해서,
즐거움과 너무나 여러 번 반복된,
되풀이되는 행복에 의해서, 또한
잊힌 사물을 대신하는 모호한 느낌들의
힘에 의해서, 그 똑같은 장면들이 너무 밝고,
너무 아름답고, 그 자체로 너무 장엄해서
세월이 지나도, 마치 습관처럼
소중하게 다가왔고……

-And if the vulgar joy by its own weight
Wearied itself out of the memory,
The scenes which were a witness of that joy
Remained in their substantial lineaments
Depicted on the brain, and to the eye
Were visible, a daily sight; and thus
By the impressive discipline of fear,
By pleasure and repeated happiness,
So frequently repeated, and by force

Of obscure feelings representative
Of things forgotten, these same scenes so bright,
So beautiful, so majestic in themselves,
Though yet the day was distant, did become
Habitually dear……(1. 597-610)

첸들리는 이 인용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어린 적 시인이 자연을 통해 겪은 감각적 경험 때문에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사물에 대한 상 자체가 변화하였고, 그 외부적 자극으로 인한 감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져도 그 변화된 상은 마음에 계속 남아 있어 마침내는 현재에 시인이 사물을 지각하는 경험들의 인식까지도 변화시킨다(209). 현재에 와서도 과거에 받은 자극 때문에 지각 능력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호한 느낌들”은 “현존하는 재현”(present re-present; 210)으로서, 과거와 현재와의 접점으로써 과거의 이미지들을 현재에 의미 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해 시인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 일조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자연의 자극으로 인해 길이 든 마음의 습관에 의해 장면을 목격했을 때의 감정들이 “스스로 희미해져 기억에서 사라져도” “잊힌 사물을 대신하”여 남아 있는 것이다.

워즈워스 자신도 『서문』에서 시란 “강력한 감정의 자발적인 흘러넘침”이라고 선언한 후, 그 뒤에 많은 단서를 덧붙이면서 마음의 습관이 느낌과 생각의 경계가 흐려지는 모습과 연관이 있음을 서술한다.

모든 좋은 시는 강력한 감정의 자발적인 흘러 넘침이다. 그러나 비록 이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가치라도 부여될 수 있는 시는, 비범한 감수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쓰는 종류의 것이다. 계속해서 흘러 드는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 변형되고 유도되며, 그 생각은 우리의 과거에 느낀 모든 감정의 표상이다. 그리고 이 일반적 표상들 사이의 관계를 숙고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에게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행동의 반복과 지속을 통해 중요한 주제와 연결된 감정을 키울 수 있다. 그 결과, 만약 우리가 이런 유기적인 감수성을 본래 가지고 있다면 일종의 마음의 습관이 생성되는데, 단지 맹목적이고 기계적으로 그런 습관의 충동에 복종하는 것 만으로도 우리는 밀접하게 관련된 사물들을 묘사하고 감정을 토로하게 되어 (상대방의 이해가 건강한 연상 작용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한다면) 상대방을 어느 정도

계몽시키고 취향을 고양시키고 감정을 순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For all good poetry is the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s; but though this be true, Poems to which any value can be attached, were never produced on any variety of subjects but by a man who being possessed of more than usual organic sensibility had also thought long and deeply. For our continued influxes of feeling are modified and directed by our thoughts, which are indeed the representatives of all our past feelings; and as by contemplating the relation of these general representatives to each other, we discover what is really important to men, so by the repetition and continuance of this act feelings connected with important subjects will be nourished, till at length, if we be originally possessed of much organic sensibility, such habits of mind will be produced that by obeying blindly and mechanically the impulses of those habits we shall describe objects and utter sentiments of such a nature and in such connection each other, that the understanding of the being to whom we address ourselves, if he be in healthful state of association, must necessarily be in some degree enlightened, his taste exalted, and his affections ameliorated; (246-47)

위 인용문에 따르면, 마음의 습관은 외부에서 온 자극에 대해 그 느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숙고의 과정, 즉 자신의 '생각'으로 오랫동안 곱씹음으로써 형성된다. 하지만 그 '생각'이란 것 역시 '과거에 느낀 모든 감정의 표상'이라고 주장하는 데에서 워즈워스가 이 인용문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접점을 찾으며, 느낌과 생각이 서로를 재생산하는 관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음의 습관이란 사고와 느낌의 경계가 사라진 형태의, 워즈워스 자신의 고유한 시적 언어를 생산해내는 방법이다.

이제 워즈워스가 언급한 마음의 습관, 그리고 그에 대한 챌들리의 해석에 의거해 1권의 어린 시절의 시인이 노를 저어 나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읽어 보자. 그 장면에서 시인이 노를 저어 가다가 되돌아오는 장면은 단순히 시인이 어릴 적에 보고 느낀 것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지만, 이는 곧 세월이 흐른 후 이 시를 쓰는 시인의 마음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의미를 가지는 장면의 재현이기도 하다. 여기서 자발적 의지를 가진 것처럼 묘사되는 자연은 어릴 적 시인의 마음에 충격을 준

주체임과 동시에, 그 충격에 영향을 받은 시인의 마음이 세월이 흐른 후에 이를 다시 떠올려 현재의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모습으로 재생해낸 모습이기도 하다.

채들리는 이처럼 자연의 지속적인 자극에 의해 사물을 인식하는 지각 자체가 바뀌어 나중에는 과거를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현재에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생각의 습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마이네케(Freidrich Meinecke)의 버크의 전통주의에 대한 언급을 빌어 보다 넓은 의미의 “심리학적인 삶”(psychological life; 198), 즉 위즈워스 개인의 내적 심리에서 출발하였지만 그의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정치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마이네케의 버크에 대한 언급을 옮겨오자면, 버크가 추구한다는 “고매한 전통주의”(high traditionalism; 198)는 위에서 언급한, 과거와의 무조건적인 단절을 선언한 합리주의와 달리 “느낌과 생각, 의식과 무의식, 상속받은 요소와 개인의 의지가 서로 섞여 통일을 이룬”(a unity in which feeling and thought, th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the inherited factor and the individual will, blend with one another; qtd. 198) 모습을 구현한다. 채들리는 마이네케의 발언, 즉 위에서 인용한 대립항들 사이의 화해와 통일이 일어나는 모습이 위즈워스의 시에서 관찰된다고 설명하며, 이를 이성을 보완해 주는 관습의 힘을 강조하는 버크의 말과 연결시킨다. 버크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소회』(*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에서 전통과 관습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당시 혁명 옹호론자들에 대해 “편견이라는 코트를 벗어 던져 버리고, 벌거벗은 이성 외엔 아무것도 남겨 놓지 않는다”(cast away the coat of prejudice, and to leave nothing but the naked reason; 183)라고 비판한다. 이어서 그는 혁명 옹호론자들이 편견이라고 부르는 전통과 관습이 이성을 보완해 주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감성”(inbred sentiments; 182)의 일종으로서 몸에 익은 습관과 같이 “위급시에 활용할”(application in the emergency; 183)수 있는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채들리는 이처럼 버크가 이성에 선행하며 인간의 본성과 관계된 원초적인 자질이 있음을 언급했다는 것에 착안해 위즈워스가 추구하는, 사물의 인식 단계에서부터 작용하는

상상력이 버크의 전통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찬들리의 주장이 가지는 문제점은 위에서 설명하였듯 노를 저어 가다가 되돌아오는 장면을 통해 시인 자신의 의지가 “잘못 인도되었음”을 알아차린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이네케의 설명대로라면 버크는 생각과 느낌의 이분법을 타파하고 있고, 워즈워스는 이를 자신의 시에서 구현하고 있는데, 이 이분법이 와해되는 현상이 어떻게 버크가 주장한 관습, 즉 영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전통과 문화, 가치에 대한 신봉으로 귀결되어야만 하는지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말이다. 찬들리는 또한 영국의 전통적 가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기존의 정치 체제에 대한 신봉, 즉 “우리는 신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왕을 경외심으로 우러러본다. 의회에 대해서 애정을, 장관들에 대해서는 의무감을, 성직자들에게는 외경을, 귀족에게는 존경을 가지고 우러러본다”(we fear God; we look up with awe to kings; with affection to parliaments; with duty to magistrates; with reverence to priests; and with respect to nobility; 182)와 같은 주장이 생각과 느낌의 이분법이 해체되는 현상과 어떻게 곧장 연결될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찬들리의 위 인용문에 대한 해석을 보면, 그는 위와 같이 자연물의 방해 때문에 시인 자신의 의지를 꺾은 어린 시절의 과거와 1권에서 방황을 마치고 시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선언하는 부분, 즉“이것 때문이었던가”(Was it for this; 1. 43)로 시작하는 부분을 연결시킨다. 찬들리는 이 부분에서 그가 태어난 곳인 영국 코커머스(Cockermouth)의 더웬트(Derwent)강이 언급되었다는 이유로 강에서 노를 젓다 다시 돌아오는 어린 시인의 모습을 시를 쓸 때에 영국적인 가치로 회귀하는 나이 먹은 시인의 모습으로 해석한다(212). 하지만 노를 저어 갔다가 돌아오는 어릴 적 시인의 모습과 시를 쓰리라 결심하는 1권에서의 시인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개연성은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데다가, 더웬트 강을 언급한 것을 그가 영국적인 국가주의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찬들리가 이 구절이 가지는 의미를 확대해석 했다고 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해석을 통해 찬들리는 마이네케가 언급한 대립항들 사이의 진정한 화해가 아니라 단지 개인의 의지와 사고가 과거의

관습과 그가 상속받은 영국 문화라는 국가적 가치에 일방적으로 굴복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 같다.

하지만 『서곡』에서 워즈워스는 자연이라는 책에 대해 “이런 책이 눈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진정한 형제애와, 평범하고도 공통적인 인류의 이성, 그리고 노소에 두루 해당되는 진리를 읽지 않을 수 없다”(With such a book / Before our eyes, we could not choose but read / Lessons of genuine brotherhood, the plain / And universal reason of mankind, / The truth of young and old; 6. 543-47)고 주장한다. “시인의 마음의 단련”(The Discipline of a Poet’s Mind; 184)이라는 챌들러의 책 중 한 장의 제목처럼 자연이 시인의 마음을 단련(discipline)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단련을 버크의 주장대로 기존의 관습, 혹은 영국의 국가주의라고 간주하기에는 워즈워스가 자연이라는 책에서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초월적이고 파격적이다

오히려 필자는 앞에서 챌들러가 버크의 전통주의가 개인의 내적 심리의 복잡한 움직임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강조하기 위해 인용한 마이네케의 주장들을 인간의 사고의 힘과 상상력이 가지는 가능성을 긍정하는, 지극히 공화주의적인 인간관과 연결시킬 수 있으며, 이를 앞에서 언급한 민주주의의 딜레마와 연관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이 장의 가장 앞의 논의를 더 진전시키기 위해 워즈워스의 시에서 자연은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워즈워스의 시적 상상력은 앞에서 언급한 민주주의 이념의 딜레마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6권에서의 장면들을 통해 먼저 살펴본 후, 이 장면들이 어떻게 챌들러가 강조한 내적 심리와 인식의 움직임과 연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6권의 절정인 알프스 정상에 오르는 장면에서 시인의 시각은 시각의 지배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각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시인이 현재에 대한 인식을 자신의 주관적인 창조력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인식의 형태로 창조를 행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농부에게서 알프스를 넘었다는 답변을 들을 때만 해도 그는 “여전히 우리의 희망은 저 구름을 향하고 있었”(still we

had hopes that pointed to the clouds; 6. 587)지만, “우리의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저 강을 따라 가는 내리막이었다는 것이 시야에 분명히 보였다”(our future course, all plain to sight, / Was downwards, with the current of that stream; 6. 584-85)라고 말한다. 외부 환경이 자신의 눈에 투사하는 시각적 정보를 절대적 권위로 받아들이고, 이를 믿으며 자신의 경로가 정해져 있다는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여기서 시인은 자연이 시인의 자아에 일정한 위협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공화주의의 구조적 문제, 즉 외부의 압박에 맞서 개인의 영역을 지키는 문제를 자연과 자연을 대면한 자아의 구도를 통해 천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의 워즈워스의 경험과 이와 연결된 시적 상상력의 발현은 내적 양심과 외부적 강압의 대결 구도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으면서도, 또한 이 두 요소가 만들어내는 딜레마가 기적으로 화해하는 신비한 현상이기도 하다. 알프스 관광의 절정은 그가 몽블랑을 목격하였을 때가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그는 심플론 고개(Simplon Pass)를 넘은 후 농부의 말을 통해 그들이 알프스를 넘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정도로 허탈감과 아쉬움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워즈워스가 그 순간 또한 느끼는 것은 “인간 언어의 슬픈 무능함 탓에 이렇게밖에 불리지 못하는 힘”(power so called / Through sad incompetence of human speech; 6. 592-93)인 “상상력”(imagination; 6. 592)이다. 그가 인간 언어에 대해 한계를 느낀다고 말하였듯이, 상상력이라고 지칭하기도 부족한 이 미지의 힘은 그를 감싸서 “벗어나려는 노력도 없이 멈추고 넋을 잃게”(I was lost / Halted without an effort to break through; 6. 596-97) 만든다. 이 인용문에서 시인은 상상력이라는 능동적 뉘앙스가 있는 단어가 무색하게 오히려 그 자신의 무력감과 수동성을 극대화시키게 되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자신을 버릴수록 그의 시적 창조력의 근원인 상상력은 더욱 강력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알프스를 넘을 적의 희열이 지나갔음에 굴하지 않고 “당신의 영광을 인식하노라”(I recognise thy glory; 6. 599)라고 선언하는데, 이 구절에 따르면 알프스를 내려올 때의 실망스러운 사건이 오히려 자신의 것으로

인식조차 잘 하지 못하는 시적 상상력을 찬양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워즈워스의 회상을 통해 재현되는 이 장면은 루소의 모순적인 언어를 사용해 표현한 사회계약론의 핵심, 즉 개인의 의지를 내어 놓음으로써 역설적으로 더욱 자유로워지며, 인간은 인간 이상이 된다는 주장의 형태와 묘하게 닮아 있다. 물론 워즈워스의 시에서 자연은 사회계약론의 딜레마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 체제와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루소가 주장한 공화주의에 수반되는 구조적 딜레마가 워즈워스의 시에서 아주 잠시나마 화해를 이루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상상력의 힘에 힘입어 시인은 시각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연을 자신의 자발적 의지와 상상력으로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트만은 알프스를 넘는 장면에서 시인이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상상력이라는 궁극의 통찰력”(the ultimate insight as to the independence of imagination from nature; *Wordsworth's Poetry* 240)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트만이 주장한 대로 이는 상상력의 “독립”, 즉 자연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개인의 능력과 자유를 제한 없이 펼치는 경지를 일컫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독립으로 인한 무한한 자유는 자연 속에서 자신을 잃으면서 더 궁극적으로 발현된다. 이 단락 뒤에 시인은 좁은 협곡을 따라 걸으며, “측량할 수 없이 높이 솟은 숲”(immeasurable height / Of woods; 6, 624-25), “맑고 푸른 하늘에서 쏟아지는 격류”(the torrents shooting from the clear blue sky; 6, 629), “포효하는 물살”(raving stream; 6, 633) 등 강력한 시각적, 청각적 자극에 의해 점점 감각이 혼동되게 된다. 그리고 하트만의 말을 빌리면, 마침내 시인은 자신의 상상력으로 “시야로부터 독립된 마음”(mind independent of sight; *Wordsworth's Poetry* 241)을 가지고 사물을 이해하며, “시인의 마음은 시야나 그 시야에 들어온 것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 의해 발현된다”(the poet's mind is roused not by sight or by the idea of sight, but by the idea of a blindness; *Wordsworth's Poetry* 241). 이 구절을 풀이하자면, 시인은 눈에 뵈지 못하기에

절대로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은 시야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자연은 그에게 감각의 혼동을 선사했으나, 그 혼동은 감각의 혼란으로 그치지 않고 시인 나름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주관적인 심상을 끌어내는 데 기여하여 그가 시각의 지배에서 벗어나 시적 상상력을 발현할 수 있게 돕는다.

소용돌이와 평화, 어둠과 빛-
 이 모두가 한 마음의 작용들, 같은 얼굴의
 여러 형태들, 한 나무에 핀 꽃들과 같았으며,
 이는 위대한 묵시록의 특징들,
 처음과 마지막, 중간, 그리고 끝이 없는
 영원함의 형태와 상징 같았네.

Tumult and Peace, the darkness and the light-
 Were all like workings of one mind, the features
 Of the same face, blossoms upon one tree;
 Characters of the great Apocalypse,
 The types and symbols of Eternity,
 Of first, and last, and midst, and without end. (6. 635-640)

위 인용문을 보면 시인은 "소용돌이와 평화", "어둠과 빛"이라는 각기 대조되는 이미지들을 동일하게 인식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동일한 인식이 "한 마음의 작용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시인이 자신의 독립적인 마음의 작용에 따라 모순되고 상반되는 사물의 형태들을 시각의 지배에서 벗어나 다르게 인식한다는 증거이다. 상반되는 이미지들이 사실은 "같은 얼굴의 여러 형태들"이라고 주장하는 데서도 시인이 본인의 상상력에 힘입어 이 모순들이 해결된 궁극적인 사물의 원형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세계는 위 인용문의 마지막 줄이 말해 주듯이 "처음과 끝, 마지막이 없는" 영원한 형태들과 상징들이다. 그러나 시인이 동시에 느끼는 것은 이 이미지들을 "묵시록의 특징들", 즉 인간을 향한 초월적 존재의 강한 메시지로 느낀다는 것이다. 이 구절에서 독자들은 시인이 자연이 주는 강력한 교육의 효과, 즉 일시적으로 자신을 버리게 만드는 효과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교육의 효과 덕분에 시인은 자연에 의해서 자연과

독립되어 자신의 상상력을 발현하게 되는 대단히 모순적인 명제를 달성하게 된다. 6권의 말미에서 시인이 마침내 “굽실대지도, 압도당하지도 않은 채”(not prostrate, overborne; 6. 736) 알프스의 웅장한 자연을 마주할 수 있는 이유 또한 자연에 의해 시인이 자기 자신을 순간적으로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알프스 등정 장면에 대한 하트만의 해석을 참고하면, 시인의 시적 상상력이 기계론적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이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발현되는 모습을 조명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찬들러가 1권에서의 “시점”(spot of time)을 읽으면서 발견한 생각과 느낌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 혹은 시인이 과거에 받은 느낌이 현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심플론 고개를 넘고 난 후의 시인의 인식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하트만의 주장처럼, 시인은 외부의 자극에서 독립해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그 상상력은 앞에서 보았듯이 사물을 보이는 것과 다르게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보이는 것과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에서 그의 독립적인 생각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인식의 형태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에서 시인이 외부의 사물에서 받은 느낌에서 기인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시인은 독립된 상상력으로 이 일을 해내지만, 그가 상상력을 가지게 되기까지는 역시나 자연의 자극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에서 공화주의의 딜레마는 순간적으로 화해를 이루게 되고, 이 화해가 느낌과 생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 그리고 상속받은 느낌들과 개인의 의지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모습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즈위스가 혁명에 환멸을 느끼고 정치적 인간에서 시인으로서의 자신으로 본격적으로 돌아서는 전환점을 극적으로 나타낸 12권을 보자면, 여기서도 6권에 나오는 내용과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위에서 분석한 시각의 지배로부터의 탈출이다. 12권에서 시인은 “육신의 눈”(The bodily eye; 12. 128)을 “우리의 감각들 중 가장 독단적”(the most despotic of our senses; 12. 129)이라고 규정하면서, 자신이 혁명의 이상에 지나치게 빠져 있을 때를 시각이 자신을 지배했던 때라고 밝힌다. 이어서 시각이 행사하는 “절대적인 지배”(absolute

dominion; 12. 131)로부터 자연이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모든 감각들을 불러 모아 서로 다른 감각들과 그 자체에 반작용을 일으키게 한다”(summons all the senses each / To counteract the other, and themselves; 12. 135-136)고 서술한다. 이를 6권에서 자연이 시인에게 감각의 혼동을 선사하여 그를 시각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독립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준 것과 연결시키면, 시인의 독립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성장은 그가 부조리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혁명의 예상 효과에만 빠져 있었다가 그 부작용을 인식하고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설명할 수 있게 된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으로 풀이할 수 있다.

12권의 주요 장면 중 하나인 물병을 이고 가는 소녀를 목격하는 장면은 6권의 심플론 고개를 넘어 알프스를 내려올 때의 장면과 비교될 수 있을 듯하다.

그 소녀는 물병을 머리에 이고
 불어오는 바람을 거슬러 길을 가느라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듯했네. 그건 사실
 혼한 광경이었네. 그러나 잃어버린 안내자를
 찾느라 두리번거리는 동안, 황폐한 황무지,
 바닥을 드러낸 웅덩이, 외로운 고지를 장식한
 봉화대, 강한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애태우는 소녀와 그녀의 옷을 에워싼
 꿈결 같은 황량함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색깔들과 언어들을
 필요로 했을 것이네.

A girl, who bore a pitcher on her head,
 And seemed with difficult steps to force her way
 Against the blowing wind, It was, in truth,
 An ordinary sight; but I should need
 Colours and words that are unknown to man,
 To paint the visionary dreariness
 Which, while I looked all round for my lost guide,
 Invested moorland waste, and naked pool,
 The beacon crowning the lone eminence,
 The female and her garments vexed and tossed,
 By the strong wind. (12. 251-61)

위 인용문은 12권의 뒷부분, 즉 9권에서 12권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에서 벗어나 시인으로서의 소명을 다시 재생하면서 워즈워스 자신의 시와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로 급선회하는 지점에 위치한 장면이다. 9권에서의 소를 끌고 가는 여인과 달리, 시인은 이 소녀의 모습과 주변의 황량한 풍경에 대해 묘사할 뿐 이에 어떤 정치적 대의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시인이 “그녀의 옷을 에워싼 꿈결 같은 황량함” 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소녀라는 인물이 그녀를 둘러싼 배경의 일부가 된 듯한 모습을 목격하는 것이며, 이런 관찰은 다름 아닌 “꿈결 같다”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부분적으로 시인이 감각에 혼동을 겪으면서 그 혼동을 시인 자신의 주관적인 심상으로 대체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 주관적인 심상에 대해 시인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색깔들과 언어들을 필요로 한다” 고 말함으로써 그 대체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과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며, 주관적인 심상의 발현이 자연의 도움에 기반했음을 암시한다. 결정적으로 시인은 그 자신이 “혼한 광경” 이라고 규정한, 당시에 일상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장면에서 보통 사람들은 전혀 느낄 수 없는 심상을 뽑아낸다. 이는 풀커가 말했듯, 시인의 시적 상상력은 타인에 비해 한층 민감한 감수성과 상상력에 힘입지만, 한편으로 그 상상력은 보통 사람들과 일반적인 풍경에서 얻은 영감에 기반을 둔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위 장면을 평범한 장면들을 보통 사람보다 더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읽어낸다는 시인의 상상력의 특징에 맞추어 조명해 보자. 위 장면에 등장하는 소녀뿐 아니라 황량한 황무지 정상에 있는 우물과 말라 버린 웅덩이, 봉화대 등도 어디서나 목격할 수 있는, 그리고 시인이 다섯 살 때 목격했던 자연물들의 이미지들이다. 환경과 소녀가 일체화되어 보이는 것 또한 시각적으로 모래바람 때문에 그녀의 모습이 풍경에 묻혀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워즈워스는 이 평범한 장면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심상을 발현한다. 위에서 시인이 묘사하는 장면은 자연의 행사로 인해 그의 감각이 혼동되어 인식한 현실이면서 동시에 그 자신의 심상으로 새롭게 해석된 현실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어디까지가 그의 심상으로 만들어 낸

것이고, 어디까지가 자연이라는 실체가 그의 감각에 부여한 현실인지 혼동되게 서술함으로써 시인은 제한 없이 발현되는 시인의 상상력의 힘과 일반인이 자연의 자극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현실의 모습을 모두 구현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 수호와 시민들 사이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공화주의 체제 자체가 안고 있는 딜레마가 시인의 예언자적 상상력과 일반인으로서의 인식 사이의 거리가 사라지는 구도로 전환되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인은 이 긴장이 서로 섞여 들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딜레마가 기적으로 해소되는 장면을 순간적으로 연출한다. 따라서 위즈워스의 정치적 맥락에서 벗어나 시인으로서의 소명을 깨닫는 전환점에 위치하는 12권의 장면은 9권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쳐서 묘사되었던 당대의 정치적 맥락에서 전적으로 벗어났다고 해석되거나, 그의 정치적 담론에 대한 무조건적인 후회로 해석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장면은 공화주의의 딜레마에 대해 그만의 방식으로 그 딜레마가 해소되는 장면을 연출해 보려 했던 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인의 소명을 깨닫는 장면이 정치적 맥락에서 탈피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가 공화주의적 비전을 버리고 보수화되었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위즈워스의 서술은 정치적인 적시성이나 의미를 잃어버리지만, 위즈워스는 마음의 아주 원초적인 움직임으로 공화주의라는 정치적 이념에 깃들여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서술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위즈워스의 시적 상상력이 공화주의의 딜레마를 순간적으로 해소하는 현상은 공화주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적 이상을 시사할 수 있는가? 위에서 확인한 내용은 위즈워스가 혁명에 대한 경험으로 느낀 개인의 내면과 사고를 온전히 존중하고 표현할 필요가 그의 자연을 노래한 시에서 시 속 화자가 외부 현실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경계가 흐려지고 통합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 모호해짐이 공화주의의 구조적 딜레마를 해소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공화주의의 구조적 딜레마가 결국 사회 체제 아래에서 새롭게 권리를 가지게 된 개인과 개인의 정치적 참여로 형성되지만 역설적으로 개인을 통제할 수도 있는 체제 사이의 긴장이라는 것을 상기해 보자. 그렇다면 위에서 시인이 개인의 섬세한 내면의 모습을 통해 묘사한 느낌과 생각의 통합을 통해 시인은 공화주의에서 개인이

주체적으로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사고함으로써 적극적 정치 참여를 수행하는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 내었고, 또한 그 정치 참여가 의지 수렴을 통한 공동선의 실현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공화주의의 구조적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희망적으로 그렸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워즈워스가 묘사한 개인의 섬세한 내면의 묘사는 진정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공동체와 자신의 주체적 사고를 공유함으로써 정치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개인, 즉 공화주의 체제 아래에서의 이상적인 시민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워즈워스의 비전이 단순히 주체적인 사고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에 멈추지 않고, 타자와의 보다 원초적인 감정의 교류와 공감을 통한 보편적인 인간상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워즈워스가 말하는 숙고의 의미는 감정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으며, 이는 외부 세계, 혹은 타자와의 원초적인 감정의 교류를 상징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시인이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참고해 보자.

먼지와 같은 우리이나 불멸의 영혼만은
음악의 화음처럼 자라며, 어둡고 불가사의한
솜씨가 불협화음을 만드는 요소들을
조화롭게 하고, 그것들을 하나의 사회 안에서
서로 달라붙게 한다네. 얼마나 신비한가,
내 마음 속에 서로 뭉쳐 있는 모든
공포, 고통, 그리고 어릴 적의 고통들,
회한, 곤혹스러움, 나른함 등이 힘을 합쳐,
내가 나 스스로를 가치 있다 여길 때의
평온한 존재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한 부분을 이룰 수 있으니!

Dust as we are, the immortal spirit grows
Like harmony in music; there is a dark
Inscrutable workmanship that reconciles
Discordant elements, makes them cling together
In one society. How strange that all
The terrors, pains, and early miseries,
Regrets, vexations, lassitudes interfused
Within my mind, should e'er have borne a part,

And that a needful part, in making up
The calm existence that is mine when I
Am worthy of myself! (1, 340-50)

위 인용문에서 그는 어릴 적의 상처나 두려움 같은 감정을 마냥 잊고 싶은 기억이나 아니면 교육에 의해 고쳐진 흔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온한 삶과 상상력의 한 부분으로 오롯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워즈워스가 혁명을 신봉했을 때의 자신의 미성숙함을 자신의 어린 시절에 빗대어 설명하였음을 참고해 보면, 그는 자신의 과거의 혁명에 대한 열정을 마냥 타도하거나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열정을 가졌던 때의 기억들이 그에게 상처로 남았을지라도 그 기억들을 있는 그대로 간직하려 하는 듯하다. 또한 위에서 시인이 회상하는 “회한”이나 “곤혹스러움” 등의 감정은 이는 앞에서 어릴 적 시인이 노를 저어 가던 도중 높은 절벽, 즉 어린 시인의 인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미지의 대상을 마주했을 때에 일어나는 두렵고 낯선 감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워즈워스는 이 두려움을 마냥 거부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인식하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 타자란 내가 아닌, 어찌 보면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고, 따라서 이 타자를 마주하는 주체는 불가해함, 두려움과 함께 자신의 존재, 혹은 정체성이 위협당하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이 장면에서 워즈워스는 자신의 과거라는 타자가 부여하는 정체성의 위협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정들을 배타적으로 적대시하기보다는 존중하고 수용하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

3. 시 속 하층민과 공동체의 가능성:

「무너진 오두막」을 중심으로

3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했던 시인의 타자에 대한 성숙한 인식과 감정의 교류에 대해 위즈워스의 시 속에서의 하층민이 등장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감정의 공유가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루소의 공화주의에 근거한 공동체와 어떻게 연결되며, 또한 어떤 면에서 루소의 그것을 초월하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2장의 말미에서는 『서곡』에서 드러나는 상상력이 자연에 의해 자신을 버리게 됨으로써 시인 자신의 창조적인 상상력을 더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 측면을 서술하였고, 인식과 사고의 모순적인 조화가 공화주의의 딜레마를 순간적으로 무너뜨리는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다. 2장에서 살펴본 시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상이나 비전을 창조하는 능력일 뿐 아니라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인식된 상을 마음 속에서 성숙시키는 습관의 일종이었던 것과 유사하게, 프라이(Paul H. Fry) 역시 상상력의 인식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그는 위즈워스의 시에서 타자가 주체에 인식적인 충격을 주는 면에 주목해, 시인이 규정하는 상상력은 “계시적”(revelatory; 13)이고 “창조적”(creative; 14)인 능력이라기 보다는 “능력이라고 부르기도 힘들며”(hardly be called faculty; 14), 사물로부터 받은 인상이 일종의 “기운으로 변환”(auraticization; 14) 모습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프라이는 상상력을 사고가 작용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기 힘든 무언가를 인식하는 능력, 아니 능력이라고 할 수도 없는, 타자를 인식할 때 내면 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흐름이나 받게 되는 인상 자체로 지칭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시인의 인식의 양상에 집중한다. 그리고 그 “시적인 지각”(poetic perception; 18)이 귀결되는 곳은 상징물이나 자연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온전한 하나가 되는 모습이다(18).

프라이는 온전한 하나, 즉 타자와 주체의 구별이 없어지는 모습을

워즈워스의 시 안에서 관찰하며, 그 하나됨을 주체가 비인간성을 체험한다는 서술로 풀어낸다. 그는 워즈워스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바보나 노인, 혹은 광인 등 사회의 최하층 사람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시인이 정치적 담론을 초월한, "존재적인"(ontic; 6)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 평등의 구체적인 모습은, 프라이에 따르면, 모든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비인간"(nonhuman; 8)이다. 프라이에 따르면, 노인이나 광인, 결인 등의 사회의 주변화된 존재들은 "죽음과 시체에 대한 시사"(intimation of death and corpsehood; 10)라는 형식으로 사자(死者)들과의 친교를 경험함으로써 죽어서 이미 비인간, 즉 '사물'(thing)이 된 존재가 사실은 산 사람들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일깨워 준다. 프라이는 만물의 "비인간적인 공통성"(nonhuman commonalty; 9)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일곱이어요」("We are Seven")를 예로 든다. 그는 이 시에서 제인(Jane)과 존(John)등 두 아이가 죽었으니 일곱 아이 중 다섯이 남았다고 인식하는 화자에게 여전히 우리는 일곱이라고 말하는 아이의 눈으로 살아 있는 형제와 죽은 형제, 그리고 부재 중인 형제들을 동등하게 보게 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인간과 인간이 아니게 된 존재 사이의 같음을 발견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 '같음'을 통해 워즈워스의 시는 루소의 정치적 담론이 가지게 되는 한계, 즉 "사회적 존재는 그 자체로 정확히 차별이"(social being is itself precisely the differentiation; Fry, 6)라는 한계를 극복하며, "그(워즈워스)는 평등을 이 커다란 무기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의 존재적인 통일성에서 찾는다"(he saw equality in this largely mineral world as the ontic unity of all things, including human things; Fry, 6)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서곡』의 6장에서 시인이 시인 자신의 과거를 시를 쓰는 현재에 불러오고, 느낌과 생각의 경계가 사라지는 모습을 연출하였다면, 「무너진 오두막」("Ruined Cottage")에서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허물고, 주체와 타자의 구별을 허무는 현상은 프라이가 주장한 비인간성에 의해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다. 시 속에서 비인간성은 황량한 자연과 무너진 네 벽밖에 없는 곳에서 마가렛의 삶을 읽어내는 행상인을 통해 구현된다. 먼저 '부재함'에서 '현존함'을 읽어내는 것을 시인의 자질이자 열정으로 해석한 『서문』의 구절을 보자.

이런 성품들에 덧붙여 그는 부재하는 것들로부터 그것들이 마치 현존하는 것인 양 영향을 받는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은 그 자신 안에서 열정을 불러내는 것인데, 그 열정은 실제 사건으로 인해 생산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단지 그들의 마음의 움직임으로 평소엔 느끼는 어떤 것보다도 더 실제 사건으로 인해 생산되는 열정에 가깝다.

To these qualities he has added a disposition to be affected more than other men by absent things as if they were present; an ability of conjuring up in himself passions, which are indeed far from being the same as those produced by real events, yet do more nearly resemble the passions produced by real events, than anything which, from the motions of their own minds merely, other men are accustomed to feel in themselves; (255)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바로 "열정"을 "부재하는 것들을 마치 현존하는 것인 양" 생각하고 볼 수 있는 능력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 열정은 2장에서 시인의 상상력의 구현을 가능하게 해 주는 "마음의 습관"과 유사하다. 마음의 습관으로 인해 이미 잊혀진 지 오래된 과거의 느낌이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쳐 과거와 현재의 접점을 만들었듯이, 이 시에서는 열정으로 인해 행상인은 부재하는 것들을 현존하는 것으로, 과거의 모습들을 현재에 적극적으로 불러온다. 덕분에 마가렛과 그 마가렛을 보고 들은 행상인, 그리고 다시 그에게서 마가렛의 이야기를 듣는 젊은 화자는 폐허가 되어 버린 네 귀퉁이 벽에서 존재적인 통일성을 느끼고, 하트만의 주장대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고립되어 있음"(we are less isolated than we think; *Unremarkable Wordsworth* 6)을 경험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무너진 오두막」의 처음 부분에서 화자가 보는 자연은 황량하기만 한, 인간의 손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다. 젊은 화자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네 개의 앙상한 벽"(Four naked walls / That stared upon each other;

31-32)밖에 발견하지 못하며, “길게 뻗어 있는 구스 베리 나무와 잎이 다 떨어진 빈약한 줄기에 매달려있는 커런트는 무너진 벽 위로 넘어 들려 하고 있었다”(The goose-berry trees that shot in long lank slips / Or currants hanging from their leafless stems / In scanty strings, had tempted to o'erleap / The broken wall; 60-63)고 무너진 오두막과 그 주변의 황량한 자연의 모습을 그려낸다. 하지만 행상인은 “나는 내 주변에서 자네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본다네”(I see around me here / Things which you cannot see; 67-69)라고 말하며, 화자가 보는 것과 똑같은 곳에서 다른 이야기를 읽어낸다. 그는 “우리는 죽네, 내 친구여. 그러나 우리는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살던 특정한 곳에서 사랑하고 아껴 왔던 것들도 함께 죽거나 변하네”(we die, my Friend, / Nor we alone, but that which each man loved / And prized in his peculiar nook of earth / Dies with him or is changed; 68-71)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살던 장소가 사람들로 인해 같이 변하며 기억을 함유하게 되고, 자신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빈 장소에서 마가렛에 대한 기억을 읽어낼 수 있음을 피력한다. 코헨(Philip Cohen)의 주장처럼 화자와 행상인의 자연을 보는 관점 사이에는 “고요하고 자연스러운 관점과 시끄럽고 인간적인 관점 사이의 대조, 그리고 영원한 자연과 필멸하는 인류 사이의 대조”(contrasts between the calm and natural and the restless and human perspectives, and between permanent nature and perishable mankind; 189)가 나타난다.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행상인은 자연에서 지금은 부재하는 마가렛과 그 가족의 흔적들을 읽어내고, 마가렛의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느끼고 공유하려 노력한다. 행상인은 “나는 샘 곁에 서서 그 안의 샘물을, 물과 내가 하나의 슬픔을 느끼는 것 같을 때까지 들여다보았다네”(Beside yon spring I stood / And eyed its waters till we seemed to feel / One sadness, they and I; 82-84)라고 말한다. 자연물인 샘에서 마가렛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과정을 통해 마가렛의 슬픔을 공유한다는 의미이다. 뿐만 아니라 행상인은 오랫동안 사람이 쓰지 않아 거미줄이 낀

샘과 그 곁에 있는 징검다리, 깨진 물통 조각에서도 감동받는다고 말한다(89-92).

시의 후반부에서도 행상인의 '마음의 습관' 에 따른 사물의 묘사는 계속된다. 시 속에서 행상인은 그 자신도 누군가에게 들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마가렛이 집을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모습을 현재의 화자의 시점에서 "독버섯의 게으른 머리"(toadstool's lazy head; 452)가 보이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엄연히 오래 전의 일인 마가렛이 집을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모습은 현재의 화자가 보는, 마가렛이 없는 자연으로 대체되지만, 그 자연에서 행상인은 마가렛을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서곡』에서도 하층민을 매개로 비인간성을 체험하는 장면들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4권에 등장하는 퇴역 군인의 모습이 등장하는 장면이다. 처음에 "괴상한 형체"(Uncouth shape; 4, 386)로 그를 인식하는 시인은 "그의 입은 달빛 아래서 기괴하게 보였다"(his mouth / Shewed ghastly in the moonlight; 4, 410-11)라는 묘사나 "유령 같은 모습"(ghostly figure; 4, 433)같은 표현에서 느껴지듯이 그 군인이 인간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어지는 시인과 퇴역 군인과의 대화에서 시인은 군인에게 군인의 과거에 있었을 법한 일들, 즉 전쟁이나 병 같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다음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동안, 나는 참지 못하고
현재의 어려움들에서 과거로 주제를 돌려
전쟁과, 전투와, 역병에 대해 이야기했네.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가 보았고 느꼈을 법한 것들에 대해서 간간이 물었네.
이야기 내내 그는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간결하게 대답했네. 엄숙하고 숭고해
보였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가 말하는 모든 것에서
낯선 반쯤-부재함 같은 것이 느껴졌네. 마치
그의 주제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아서,
더 이상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Nor could I, while we journeyed thus, forbear
To turn from present hardships to the past,
And speak of war, battle, and pestilence,
Sprinkling this talk with questions, better spared,

On what he might himself have seen or felt,
 He all the while was in demeanour calm,
 Concise in answer; solemn and sublime
 He might have seemed, but that in all he said
 There was a strange half-absence, as of one
 Knowing too well the importance of his theme,
 But feeling it no longer. (4, 434-44)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시인은 자신이 만난 퇴역 군인이 전장에서 느꼈을 법한 감정들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가 보았고 느꼈을 법한'이라는 말에서 이미 그가 이 병사에 대해 짐작하고 질문하는 내용이 군인 자신의 경험과는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또한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질문들을 한다는 것에서도 시인의 조심스러움이 느껴진다. 시인의 질문에 간결하게 하나하나 대답하는 퇴역 군인을 보며 시인은 그의 대답에서 '반쯤 부재한' 것 같은, 즉 마치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프라이의 주장처럼 하층민들을 매개로 '비인간성'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다.

7권에 등장하는 눈이 먼 걸인 역시 비인간성을 내포하는 인물이다. 단 「무너진 오두막」에서 마가렛이 행상인의 이야기를 통해 재현되는 양상과는 달리, 「서곡」에 등장하는 주변화된 인물들은 그 자신이 부분적으로 '사물'이 되고, 그 광경을 시인 본인이 직접 목격하며 비인간성을 어렴풋이 느끼는 양상으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나는 갑자기 (드문 광경은 아닌)
 눈먼 걸인의 모습을 마주했네. 얼굴을 바로 치켜들고,
 벽에 기대어 서 있던 그는 가슴 위로
 글이 쓰여진 종이를 차고 있었는데,
 그 종이는 그가 어디서 왔고, 누구였는지
 그의 일대기를 설명해 주고 있었네.
 그 광경에 사로잡혀 내 마음은 마치
 물의 힘에 의해 도는 바퀴처럼 돌았고,
 그 이름표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주에 대해
 알 수 있는 최대한을 표현하는 적절한 형식인 듯 했네.
 그의 움직임 없는 얼굴과 보지 못하는 눈을, 나는 마치

또 다른 세계에서 온 경고인 것처럼 응시했네.

I was smitten
Abruptly, with the view (a sight not rare)
Of a blind Beggar, who, with upright face,
Stood, propped against a wall, upon his chest
Wearing a written paper, to explain
His story, whence he came, and who he was,
Caught by the spectacle my mind turned round
As with the might of waters; an apt type
This label seemed of the utmost we can know,
Both of ourselves and of the universe;
And, on the shape of that unmoving man,
His steadfast face and sightless eyes, I gazed,
As if admonished from another world. (7. 637-49)

시인은 도시 런던의 수많은 문물들에 치여 지각이 혼동되면서 군중 속에 섞여 거리를 배회하다 이 걸인을 목격한다. 시인이 말하듯이 결코 드물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닌 걸인과 그의 가슴에 어디서 왔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적은 이름표를 보고 시인은 “그 광경에 사로잡혀 나의 마음은 물의 힘에 도는 바퀴처럼 돌았고 그 이름표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주에 대해 알 수 있는 최대한을 표현하는 적절한 형식인 듯 했네”라고 격동하는 마음을 토로한다. 걸인의 이름표는 그 걸인의 인생 이야기 혹은 내면이 외부적 형태로 구현된 모습이다. 하지만 걸인의 이름표를 보고 ‘알 수 있는 최대치’라는 표현을 쓰는 시인은 이름표만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 같다. 퍼거슨(Frances Ferguson)은 이 장면에 대해 “자아나 자아의 이야기 모두 다 고정된 외부적 형태로 고착화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외부적 형태는 불가해한 감정의 교류로 인해 끊임없이 내면성에 대한 상상으로 변환되기 때문이다”(Neither the self nor the story of the self can be consolidated into a fixed external form, because that external form is continually being converted into an imagination of internality, through the inscrutable touch of the affections; 145)라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 이 장면은 「무너진 오두막」의 행상인이

마가렛이 없는 자연을 보고 마가렛의 이야기를 읽어냄으로써 부재하는 과거를 현재에 존재하는 양 불러낼 수 있는 열정을 보여 준 것과 비슷하다. 비록 여기서는 시인 자신이 행상인에 비해서 다소 확신에 차 있지 않기는 하지만, 이름표에 쓰여진 것 이상을 느끼고 상상해내는 시인에 의해 이름표에 쓰여진 이야기가 쓰여진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게 되고, 이는 곧 결인의 비인간성이 시인에게 인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결인에게 내재된 비인간성은 시인이 그 결인의 모습을 “또 다른 세계에서 온 경고”, 즉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메시지로 해석함으로써 드러난다.

그렇다면 위에서 설명한 비인간성의 체험은 공화주의와 관련해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는가? 「무너진 오두막」에서 행상인과 화자는 시적 상상력에 힘입어 마가렛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동일한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루소가 중시하였던 유대감의 형성으로 구성되는 공동체 의식과 연관이 있다. 루소는 공화주의의 시스템이 법과 그 법에 의거해 뽑은 대표자라는 기계적 장치로 구동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자신들을 하나의 단체로 생각할 때 국가의 원동력인 보편적 의지가 가장 이상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루소의 말을 빌리자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강한 유대감을 가진다면 법은 거의 필요가 없으며, 법적 장치와 어떤 기교가 없이도 공화주의는 이상적인 구동이 가능하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새로운 법의 공포가 필요해질 때 그 필요성은 누구에게나 보인다. 그것을 맨 먼저 제안하는 사람은 단지 모두가 이미 느낀 것을 말할 뿐이다.”(as it becomes necessary to issue new ones, the necessity is universally seen. The first man to propose them merely says what all have already felt; 102)라고 말하였듯이, 한 사람이 느끼는 것을 모두가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면 보편적 의지는 말 그대로 전체의 의지가 되어 공공선을 향해 곧장 나아갈 수 있다. 위즈위스가 이 시에서 그려내는 공동체는 분명 루소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시가 가진 이야기의 힘을 통해 한 사람이 느끼는 마가렛에 대한 감정을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느끼는 모습은 공동체적 유대감을 통해 이상적으로 구현되는 보편 의지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다. 무엇보다 자코뱅들이

프랑스 혁명 시기에 모든 인간을 애국자와 혁명의 적으로 이분화하고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을 배제함으로써 배타적인 유대감을 확보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내었던 것과는 정 반대로, 워즈워스는 인간이 때로는 정체성의 위협으로 느낄 정도로 이질적인 비인간성을 체험함으로써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이를 통해 서로 공감하는 상호 수용적인 공동체를 자신의 시를 통해 만들어냈다. 이 점에서 워즈워스는 공동체에 대해 일견 루소와 닮아 있으면서도 자코뱅들의 폭력성과는 차별화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워즈워스가 「무너진 오두막」을 통해 그려내는 공동체의 모습은 루소의 공화주의 사회 아래서 이상적으로 기능하는 시민 공동체의 모습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워즈워스가 그려내는 소통의 모습은 단순한 유대감이나 정치적 의사의 공유를 넘어서 타자와 주체가 서로 같은 감정을 느끼며 존재적인 동질성을 경험하는 데에까지 나아간다. 위에서 관찰하였듯 화자는 행상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미 죽은 사람인 마가렛의 감정을 경험한다. 하지만 화자가 진실로 행상인이 느끼는 마가렛을 동일하게 느낀다면, 더 나아가, 화자가 진실로 마가렛이 된다면, 화자는 화자로 남을 수 있을까? 화자가 비인간성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화자는 인간으로 남을 수 있을까? 워즈워스는 「무너진 오두막」의 액자식 구조를 통해 동질성의 경험과 초월적인 감정의 교류를 그리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당대의 현실적인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이와 대치시킴으로써 시적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나와 타자 간의 결합이 매우 강력하고 초월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결합이 주체에게 정체성의 위협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앞에서 살펴본 「무너진 오두막」 중의 내용은 주로 시 속에서 행상인이 죽은 화자에게 자신의 감상에 대해 말하고 화자는 이에 대해 반응하는 모습으로, 이는 이 시의 액자식 구조 중에 바깥쪽, 즉 행상인과 그의 이야기를 듣는 죽은 화자 간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 시에서 자아와 타자 간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행상인의 이야기의 원천이 되는 마가렛의 이야기에 집중해 볼 필요 또한 있다. 파이트(Ralph Pite)는 프라이 같은 비평가들을 “심각한 생태론자들”(Deep ecologists;

185)로 규정하며 그들이 자연과의 “동일시”(identification; 185)를 통해 인류는 자연과 통합된 상태로 재진입할 수 있다”(human beings can re-enter a state of union with nature; 185)는 주장을 관철시키지만, 이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의 동일화로 인해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간과한다고 지적한다. 파이트의 관점에서 보면, 프라이 역시 주체가 경험하는 “비인간성”에 지나치게 집중함으로써 인간이 인간으로 설 수 있어야 그 비인간성도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망각한 측면이 있다.

마가렛은 행상인의 이야기를 통해 짧은 화자로 하여금 인간의 비인간성을 경험하게 해 주는 매개이다. 하지만 마가렛의 이야기는 마가렛 자신이 온전히 비인간, 즉 사물의 일부가 되는 이야기이며, 마가렛이 사물의 일부가 되는 현상은 매우 비극적이고, 파이트가 프라이 같은 생태론자들의 해석에 대해 가진 인상처럼, “인간미가 없는”(inhumanity; 190) 모습이기도 하다. 행상인은 과거로부터 소환되어 현재의 자연과 겹쳐지는 마가렛의 모습을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으로 묘사하지만, 마가렛의 죽음으로 결론이 나는 이야기 자체는 인간 공동체가 해체되는 이야기이다. 마가렛은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서서히 죽어가기 전에 남편과 아이를 차례로 잃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공감대를 유지하게 해 주는 울타리인 가족 공동체에서 내던져진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해체는 당대의 사회 현실과 맞물림으로써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마가렛의 남편인 로버트의 직업이 베 짜는 사람(weaver)이었고, 그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설정은 당시 산업 혁명 과정 중 방적기의 도입으로 갈수록 설 곳이 없어져 가는 직조공들의 현실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편이 입대하는 대가로 놓고 간 “지갑 속의 돈”(A purse of gold; 286)은 당시 1793년에 발발한 영불전쟁 때문에 많은 영국의 하층민들이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모병에 응했던 역사적 현실을 재현한다. 이 시 속에 등장하는 기근 역시 1794년 영국에 일어난 실제 사건이다.

위와 같은 역사적 상황들을 시사함과 동시에 시인은 그런 상황들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개인의 심리와 자아가 망가져 가는 모습을 여과 없이 묘사한다.

먼저 마가렛의 가족이 해체된 계기는 남편인 로버트가 입대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입대를 한 이유는 그의 가족에게 돈이 필요해서이기도 했지만, 일자리를 잃은 후 “그의 좋은 품성은 금방 기쁨을 주지 못하는 짐이 되었고, 가난은 율화와 성마른 성정을 가져다 주었다”(his good-humour soon / became a weight in which no pleasure was, / And poverty brought on a petted mood / And a sore temper; 172-75)라고 서술되었듯 삶의 애착을 잃고 방황하다 자포자기를 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군대에 간 이후 마가렛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정확히는 남편인 로버트의 죽음이 아니라 “만약 그가 살아 있어도 그녀는 그가 살아 있는지 모르고 만약 그가 죽었어도 그녀는 그가 죽었는지 모른다”(if he lived / She knew not he lived; if he were dead / She knew not he was dead; 397-399)라는 현실이다. 여기서 프로이트가 「애도와 우울」(“Mourning and Melancholia”)에서 규정한 우울증의 개념을 잠깐 빌리자면, 우울증은 명백히 상실한 대상이 있을 때에 슬픔을 표현하는 애도와 달리 잃어버린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마가렛은 남편이 곁에 없기 때문에 상실한 대상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그녀의 남편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애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가렛의 애착(libido)과 정신적 에너지는 집중(cathexis)될 다른 대상을 찾지 못한 채 그녀의 정신적 상태를 계속 악화시키기만 한다.

행상인의 “폭풍우 치는 날에는 심지어 그녀의 난로 바로 옆에서도 그녀의 냅마 같은 옷이 바람에 휘날렸다”(In the stormy day / Her tattered clothes were ruffled by the wind / Even at the side of her own fire; 484-86)라는 서술에서 독자들은 마가렛의 바람에 휘날리는 냅마 같은 옷이 다 쓰러져 가는 집의 초라한 모습과 병치되어 마가렛이 집과 그 주변의 자연이라는 사물의 일부가 되는 과정을 목격한다. 그리고 그 비인간화의 과정에는 그녀가 아이를 잃은 후에 “나는 자면서 울고, 또 울면서 깬어요. 눈물은 마치 내 몸이 몸이 아닌 것처럼, 결코 죽지도 못할 듯 흘러 나왔어요.”(I have slept / Weeping, and weeping I have waked; my tears

/ Have flowed as if my body were not such / As others are, and I could never die; 354-57)라고 고백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 북받치는 감정에 의해 육체가 무생물처럼 느껴지는 경험이 동반된다. 이어서 그녀가 죽기 전에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서서히 죽어 가면서도 “여전히 그녀는 이 황량한 곳을 사랑하”(Yet Still / She loved this wretched place; 486-87)고 있고, 다 쓰러져 가는 집과 일체화되어 죽음을 맞게 될 때까지는 사회 속 인간으로서의 그녀를 증명해 주는 가족 공동체의 상실과 그 상실로 인한 감정적 충격, 그리고 자아의 무력화가 수반된다.

그러므로 프라이의 주장에 전적으로 의지해 「무너진 오두막」을 해석할 경우, 마가렛과 그의 가족이 겪은 고통은 오히려 시적 상상력을 구현하는 깨달음의 과정으로 환원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지워 버릴 염려가 있다. 프라이의 “정치도 관습도 아닌”(neither politics nor custom; 6) 평등의 개념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비인간을 포함한 세계 만물을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하지만, 그 초월성 때문에 프라이의 주장은 인간은 한편으로는 서로 구별됨을 느끼면서 자아를 확인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워 버릴 위험을 내포한다.

코헨(Philip Cohen)이 마가렛의 이야기에 아주 강렬하게 공감하는 행상인과 그 공감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젊은 화자 사이의 차이가 서술자는 “인간의 관점”(a human perspective; 188)을 가지고 있고 행상인은 “인간 행동을 자연의 관점에서 보는”(looks at human action from a natural perspective; 188)데서 온다고 말했듯, 젊은 화자가 마가렛과 동질감을 형성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마가렛의 죽음으로 결론지어지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젊은 화자는 “나는 무력감에 돌아섰는데, 그가 말해 준 이야기에 대해 감사할 힘마저 없었다”(I turned aside in weakness, nor had power / To thank him for the tale which he had told; 495-96)라고 고백한다. 위 장면에서 화자가 느끼는 무력감은 그가 마가렛의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렸기 때문이며, 한층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아니게 된 마가렛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비인간화되는 과정, 즉 자신을 빼앗기는 과정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늙은 노수부의 노래」(“The Rime of Ancient Mariner”)에서 결혼식 손님이었던 젊은 화자가 늙은 선원의 초자연적인,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장면들을 간접 경험할 때 그 선원의 마술에 의해 일종의 트랜스 상태가 되는 모습과 비슷하다 할 수 있다.

이어서 젊은 화자가 마가렛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난 뒤에 “슬픔의 무기력 속에 나는 형제의 사랑으로 그녀를 축복했다”(with brother’s love / I blessed her in the impotence of grief; 499-500) 라는 고백을 보면, 이 고백은 화자가 행상인이 전해 주는 마가렛의 이야기를 듣고 비인간성의 체험으로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함과 동시에, 또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일종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결과인 것 같다. 여기서 슬픔이라는 감정은 비인간성의 체험으로 인해 마가렛과 자신을 어느 정도 동일시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거센 감정의 파도를 나타낸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슬픔의 표출은 그녀의 죽음에 대해 특정한 감정을 나타냄으로써 그녀의 삶을 존중하고, 자신이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형제의 사랑으로”라는 말 역시 마가렛에게 화자가 자신을 유지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 있다. 마가렛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지는 않지만, 마가렛이 잃어버린 공동체의 일부가 됨으로써 화자는 그녀의 죽음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면서 또한 최소한의 거리를 둔다.

그러나, 이후에 등장하는 행상인의 화자를 향한 권고는 화자의 공감의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내 친구여, 자네가 지금껏 슬퍼한 것으로 충분하네,
더 이상 지혜의 목적을 묻지 말게.
현명하고 활기차게 있게. 그리고 더 이상
사물의 형태들을 부적절한 눈으로 읽지 말게.
그녀는 여기 조용한 대지에서 잠들고, 평화가 찾아왔네.
나는 저 꽃들과, 잡초들과, 벽에 난 칼날 모양의 풀들이
안개와 고요한 빗방울에 젖어서 은빛으로 빛나는 모습을 잘 기억하네.
언젠가 내가 지나갈 때 내 마음은

너무나 정적인, 평온의 심상들을 옮겨 왔는데,
 그 심상들은 너무나 고요하고 정적이어서,
 내 마음을 채운 불안한 생각들 가운데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서
 우리가 폐허와 변해 버린 모습으로부터 느끼는 슬픔과 절망,
 그리고 모든 슬픔은 저 뒤에 남겨진 존재의 지나가는 외양으로,
 명상이 있는 곳에서는 살아 남지 못하는
 헛된 꿈으로 보였다네. 나는 기쁨에 차
 뒤로 돌아 내 길을 따라 내려왔다네.

"My friend, enough to sorrow have you given,
 The purposes of wisdom ask no more;
 Be wise and cheerful, and no longer read
 The forms of things with an unworthy eye.
 She sleeps in the calm earth, and peace is here,
 I well remember that hose very plumes,
 Those weeds, and the high spear-grass on that wall,
 By mist and silent rain-drops silver'd o'er,
 As once I passed did to my heart convey
 So still an image of tranquility,
 So calm and still, and looked so beautiful
 Amid the uneasy thoughts which filled my mind,
 That what we feel of sorrow and despair
 From ruin and from change, and all the grief
 The passing shews of being leave behind,
 Appeared an idle dream that could not live
 Where meditation was, I turned away
 And walked along my road in happiness." (508-25)

이 인용문에서 행상인은 슬픈 생각에 빠져든 젊은이를 달래면서 "사물의 형태들을 부적절한 눈으로 읽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다. 여기서 행상인이 말하는 "사물"은 원래부터 "비인간", 즉 사물이었던 자연이면서 동시에 죽은 이후에 "사물"이 된 마가렛을 동시에 이르는 말이다. 프라이의 주장처럼 행상인은 죽어서 "사물"(thing)이 된 마가렛을 그 주변의 자연과 다를 바 없이 서술함으로써 마가렛과 동일함을 체험한다. 그리고 이 동일함은 마가렛의 비극적 이야기로 촉발된 격렬한 감정이 가라앉고 난 후, "명상"에 의해 성숙된 감정과 인식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다. 또한 이 장면은 부재하는 존재를 현재에 불러내는 상상력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다. 여기서 행상인은 “그녀는 이 고요한 대지에서 잠들고, 평화는 여기 있다”라고 말하며, ‘잔다’는 동사를 현재형으로 서술함으로써 역시 죽은 마가렛이 이 장소 안에 현존하는 양 서술한다.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위의 인용문에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자연의 묘사를 통해 드러난 비인간성의 체험으로 인해 경험하는 과거와 현재,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동질성이 젊은 화자에게 황량한 자연에서 마가렛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는 힘을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마가렛이 겪은 비극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준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이다. 하트만이 워즈워스의 자연시에 대해 “장소에 대한 시들은 죽음에 대한 사색과 결합해, 풍경은 고요하지만 놀랄 만한 방식으로 극적으로 변한다”(Poems about place merge with meditations on death so that landscape becomes dramatic in a quietly startling way; *Unremarkable Wordsworth* 33)라고 서술했듯, 행상인이 서술하는 결말부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은 젊은 화자가 비인간성의 체험으로 인해 마가렛이 경험한 비극적인 사건과 죽음을 대리 경험하는 과정 끝에 공유하는 것이어서 더욱 아름답게 느껴진다.

하지만 프라이가 주장한 비인간성의 체험이 극한까지 실현된 이 장면은 파이트(Ralph Pite)의 주장대로 “인간의 사람다움이 (동일화를 통해) 자연 속에서 소멸된”(human personhood is either lost in nature (through identification); 186) 현상이기도 하다. 앞의 인용문에서 행상인은 “자네가 이제까지 보여 준 슬픔으로 충분하네”라고 하면서 젊은 화자의 상태를 “사물의 형태를 적절하지 못한 눈으로 읽는”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 화자가 타인에 대해 가지게 되는 감정의 정당성을 부정한다. 하지만 행상인의 주장에 동조하여 죽은 자가 현재에 완전히 재현될 경우, 마가렛과 시인은 전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고, 이를 온전히 경험한다는 의미는 곧 젊은 화자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물”이 되어 슬픈

감정을 가질 수조차 없으며 “형제”로서의 동질감조차 느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위 인용문에서 행상인이 주장하는 현재와 과거의 완전한 통합, 그로 인해 발현되는 평온한 감정은 결코 영원히 유지될 수는 없다. 이 인용문 이후에 화자는 그의 쉼 장소인 “소박한 여관”(rustic inn; 538), 즉 그가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감으로써 위에서 구현된 자아와 타인의 완벽한 통합이 결코 오래 유지될 수 없음을 암시한다. 결과적으로 워즈워스는 시적 상상력이 가진 힘을 개인들로 하여금 동질성과 감정을 공유하고 그 감정의 힘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구현하였다. 하지만 워즈워스는 이야기가 불러오는 동질성으로 인해 주체의 정체성이 위협 받는 모습, 그리고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당대의 역사적 현실과 대치되는 모습 또한 그려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시적 상상력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과 충돌하며 한계를 맞는 모습은 시를 통해 공동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위의 문제들에 대한 워즈워스의 치열한 고민과 문제 의식이 존재했음을 환기한다.

결론

워즈워스의 자연과 인간에 대한 시는 당대에 공화주의가 대두함에 따라 각 개인에게 권리와 자유가 부여되며 중요해진 개념인 개인과 개인의 내면에 대한 중요성을 조명했다는 면에서 정치적 시의성을 지닌다. 공화주의 사회 체제 아래에서 개인이 권리를 부여 받는 시민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서 개인에게 주체적인 정치 참여가 요구되는 시민으로서의 역할 역시 요구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워즈워스가 자신의 시론을 통해 강조했던 스스로의 눈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사고하는 인간상은 당대 시민의 모습과 깊은 연관이 있다.

『서곡』에서 워즈워스는 혁명의 과격화에서 자코뱅들의 언어가 개인의 내면을 단순화하고 있음을 읽어내고, 자연과 하층민에 대한 시를 통해 자코뱅들이 사용 하였던 자유와 평등 등의 거창한 명제로부터 탈피해 진정성을 가지고 느끼고 사고하는 개인과 그의 내면을 그려낸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워즈워스는 개인의 내면을 자연과의 상호작용에 힘입어 개인의 내면 안에서 느낌과 생각이 통합되는 양상으로 묘사한다. 워즈워스가 묘사한 통합의 양상은 공화주의의 구조적 딜레마, 즉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회 체제의 유지를 위해 그 자유가 통제되어야 할 필요가 생기는 딜레마를 순간적으로 해소하는 실마리가 된다. 따라서 워즈워스가 시 속에서 그려내는 스스로 현실을 인식하고 사고하는 개인의 모습은 공화주의 체제 아래에서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또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자신의 정치적 참여가 공공선으로 작용하게 만들 수 있는 시민의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워즈워스의 시론은 단순히 공화주의 체제 아래에서 제 역할을 하는 시민과 공동체 이상의 것, 즉 보편적 인간상과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낸다. 시인은 「무너진 오두막」에서 단순히 루소가 주장한 일반 의지의 실현을 위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공동체를 넘어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는 동질성과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는 공동체의 모습을 표현한다. 이를 통해 워즈워스는 시민의 개념을 넘어 개인이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감정의 교류와 공감을 통한 공동체를 형성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워즈워스가 자신의 시에서 그려내었던 개인의 의미는 단순히 공화주의에 대한 옹호로 환원할 수 없는 면을 지니게 된다. 워즈워스가 시를 통해 제시했던 진정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개인의 의미는 감정의 교류와 공감을 포함함으로써 자유나 평등 등의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명제에 의한 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화적 혁명에 대한 가능성을 내포한다.

인 용 문 헌

- 유명숙. 『역사로서의 영문학: 탈문학을 넘어서』. (주)창비. 2009.
- Burke, Edmund.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New York: Penguin, 2004. Print.
- Chandler, James K. *Wordsworth's Second Nature: A Study of the Poetry and Politics*. London: Chicago UP, 1984. Print.
- Cohen, Philip. "Narrative and Persuasion in "The Ruined Cottage"." *The Journal of Narrative Technique* 8. 3 (1978): 185-99. Web, 10 October 2013.
- Dart, Gregory. *Rousseau, Robespierre and English Romanticism*. Cambridge: Cambridge UP, 1999. Print.
- Folker, Brian. "Wordsworth's Visionary Imagination: Democracy and War." *ELH* 69. 1 (2002): 167-97. Web, 19 November 2013.
- Freud, Sigmund. "Mourning and Melancholia."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14. Trans. James Strachey. London: The Hogarth, 1964. 243-58. Print.
- Furet, François. *Interpreting the French Revolution*. Trans. Elborg Forster. Cambridge: Cambridge UP, 1978. Print.
- Hartman, Geoffrey H. *The Unremarkable Wordsworth*. Minneapolis: Minnesota UP, 1987. Print.
- . *Wordsworth's Poetry 1787-1814*. New Haven and London: Yale UP, 1964. Print.
- Ferguson, Frances. *Wordsworth: Language as Counter-Spirit*. London: Yale UP, 1977. Print.
- Fry, Paul. H. *Wordsworth and the Poetry of What We Are*. London: Yale UP,

2008. Print.
- Hopkins, Brooke. "Wordsworth's Voices: Ideology and Self-Critique in *The Prelude*." *Studies in Romanticism* 33. 2 (1994): 279-99. Web. 30 September 2013.
- Lindenberger, Herbert. *On Wordsworth's Prelude*. New Jersey: Princeton UP, 1963. Print.
- McGann, Jerome J. *The Romantic Ideology: A Critical Investigation*. Chicago and London: U of Chicago P, 1983. Print.
- Pite, Ralph. "Wordsworth and the Natural World." *The Cambridge Companion to Wordsworth*. Ed. Stephen Gill. Cambridge: U of Cambridge P, 2003. 180-95. Print.
- Roe, Nicholas. *Wordsworth and Coleridge: The Radical Years*. Oxford: Clarendon Press, 1988. Print.
- Rousseau, Jean Jacques. *The Social Contract and Discourses*. Trans. G. D. H. Cole. New York: E. P Dutton, 1950. Print.
- . *Discourse on the Origin of Inequality*. Trans. Franklin Philip. Ed. Patrick Coleman. U of Oxford P, 1994. Print.
- Wordsworth, William. "Essays upon Epitaph." *The prose works of William Wordsworth*. Ed. Alexander B. Grosart. London : Edward Moxon, 1876. 120-69. Print.
- . "Letter the the Bishop of Landaff." *The prose works of William Wordsworth*. Ed. Alexander B. Grosart. London : Edward Moxon, 1876. 19-49. Print.
- . "Preface to *Lyrical Ballads*." *Lyrical Ballads*. Ed. R.L.Bret and A.R.Jones. New York: Routledge. 1991, 241-72. Print.

- . *The Prelude*. New York: Norton, 1979. Print.
- . "The Ruined Cottage." Wordsworth's Poetical Works, Ed. E. De Selincourt, Vol.5. London: U of Oxford P, 1949. 379-99. Print.
- . "We are Seven." *Lyrical Ballads*, Ed. R. L. Bret and A. R. Jones. New York: Routledge, 1991. 66-68. Print.

Abstract

Wordsworth's Republican Poetics

Minho Maeng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lliam Wordsworth's poetics has political significance in a broad sense because he focused on the individual and individuals' internal in the contemporary debatable social structure named republicanism. In the first chapter, this thesis insists that Wordsworth felt necessity to invent a new language which focused on individual's inner world as a reflection against the radicalization of French Revolution. Due to the advent of French Revolution, the concept of individual has social significance because individuals endowed with rights of citizens according to the Jacobin's social ideal, republicanism. However, Jacobins were obsessed with Rousseau's view of language that language can transparently represent individual's will and inner working. Wordsworth observed that Jacobins actually did not respect individual's inner world and simplified it. In the following chapter, this thesis purports that in *The Prelude* Wordsworth elaborately represents individual's inner world by describing interactions between individual and the nature. Nature confuses individual's thought and the feeling so that finally they are integrated with each other. This integration momentarily resolves the dilemma of Republicanism, which is that the individual's freedom, despite its guarantee as a fundamental right, cannot

help being restricted to maintain the social structure. Through the reconciliation of the dilemma, Wordsworth's description about individuals who recognize the reality with their own view and have their own thoughts and sincerity can imply the figure of ideal citizen who autonomously participates in the politics and perform their rights by creating social consensus. In the last chapter, this thesis focuses that Wordsworth intensifies the unification of feeling and thought by depicting a narrator in "The Ruined Cottage" who experiences the non-human in the marginalized. In the course of experiencing the non-human, the narrator expands his limit of episteme and open the possibility of a newly imagined community by sympathizing and sharing emotion with Margaret. This community has a political significance in the point that Rousseau also emphasized community spirit as a prerequisite for general will to function most ideally. However, Wordsworth's community differs itself from Rousseau's because his community supposes more intrinsic interaction of emotion and sympathy. Conclusively, through his poetics, Wordsworth not only encourages people to be virtuous citizens who can think by themselves and create social consensus. He also explores the possibility of social unification in a more fundamental dimension by imagining the universal man who shares emotional and ontic identity with other fellow men.

Keywords: William Wordsworth, poetics, *The Prelude*, "The Ruined Cottage", republicanism, nature, community, the lower class

Student Number: 2012-20020